

— 2022 LH 코로나19 대응백서

— 2022 LH's Response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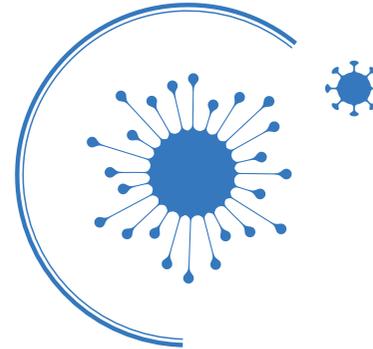
— 3년의 시간
다 함께,
그리고 이렇게

처음 겪는 감염병 재난에도 LH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겪어낸 LH의 코로나19 극복성과를 코로나19 대응백서를 통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지난 3년 동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각 나라별로 심각한 피해와 경제적인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의 유입이 시작된 2020년 1월 27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2월 23일에는 지역 대유행에 따라 ‘심각’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현재까지 여섯 번의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높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밀한 역학조사·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유행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4차, 오미크론 대유행과 백신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 저하로 현재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3년간 이러한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춰 LH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정부의 방역단계별, LH 관리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수립·대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포함한 상황관리방안 수립 등 자체 대응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직원 안전보건, 사옥관리, 복무관리, 임대주택·건설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분야별로 본사 각 주관부서에서 LH 맞춤형 대응지침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본부에서도 안전관리단, 경영혁신부를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 대응이 진행 중이지만 본사·지역본부별 전 부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대응한 결과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국내 최대 대국민 주거복지서비스 공기업으로서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학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방역지원, 임대료 감면 등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였으며, 발주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 투자활성화 선도, 건설업체·임대관리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 제고방안으로 2020년 약 4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22 LH 코로나19 대응백서’에서는 그간 LH 전 부서,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일궈온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공유하여, 앞으로 새로운 재난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욱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해온 LH 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에도 대한민국과 우리 LH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10.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



주거생활서비스처 경남지사 김해구산



주거생활서비스처 경남지사 마산중리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퍼져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기에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방역활동을 펼쳤고,
자기방어에 취약한 세대를 방문하여 방역물품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LH와 국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거생활서비스처 부산금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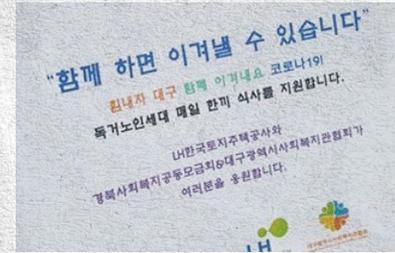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대면접촉 최소화 등으로 3년여의 시간동안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의료현장에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LH는 동네식당 살리기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고 도시락을 지원하여
홀몸어르신을 챙겼습니다. LH 임직원이 마음을 한데 모아 참여한 단체헌혈은
혈액수급난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총무고객처 LH 임직원 헌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건설현장 코로나19 예방교육



주거생활서비스처 서산석림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며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에 힘입어
 모두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LH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CEO 점검

LH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단계별, 관리대상별 종합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 유행까지,
지난 3년간의 기록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LH 코로나19 대응



NH 코로나19 방역단계별 관리대상별

정부발표

2020년				
해외 유입 사례별 발생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1차 대유행)	소규모 집단 신발적 발생	소규모-중간규모 집단 다수 발생 (2차 대유행)	전국적 대규모 유행 (3차 대유행)
'20.1.20~2.17	'20.2.18~5.5	'20.5.6~8.11	'20.8.12~11.12	'20.11.13~'21.1.19~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1.20)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2.20),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작(3.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6.11~),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12.23~)		

코로나19 관련 동향

NH 주요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신규 업무계획수립 (20.1월) 코로나19 '경계' 단계 격상에 따른 NH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부문별 코로나19 비상 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20.2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황에 따른 NH코로나19 종합 대응 방안수립(20.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CEO특별 방침 시행(20.5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발표에 따른 행동요령 시행(20.5월)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행동요령 전파(20.6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 전파(2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방안전파(20.8월) 추석특별방역기간 NH대응방안 전파(20.09월) 거리두기 1단계완화에 따른 대응방안 전파(20.10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및 거리두기 대편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철저(2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CEO 서신 게시(20.11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강화(12.8~)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요청(20.12월)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대응계획 전파(20.12월)
--	---	--	---	---

NH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신규 업무계획수립(1.16) 임직원 대응방안 수립 및 전파, 사내게시(1.28) 사육 출입 시 체온측정 게시 (2.3)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대응계획 수립(2.6) 공공임대 확진자 발생 시 세부 대응방안 수립(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채 비상운영, 체육시설 폐쇄(2.21) 재택근무 전산환경 구축(2.24) 콜센터 지원계획 수립(2.27) 건설임대 비상대응계획 추가 시행(2.28) 콜센터 상담원 근무방식 개선시행(3.2) 단체헌혈 행사 시행(3.4) 임대주택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가 임대료할인(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 사육 운영방안 수립(5.6) 생활 속 거리두기 적용 자체 교육 운영방안 수립(5.8) 종수에 기간 방재근무 종합편성 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지속시행 반영(5.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EO-건설사 대표 간담회 실시 (5.29) 코로나19 극복과 상행협력을 위한 주택관리협력업체 상생간담회 개최(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대응방안 선제적 수립(8.20) 수도권 코로나19 1.5단계 격상에 따른 임직원 행동요령 개정(8.28) 사육출입 방역강화(9.4) 포스트 코로나시대 계간지 발간 (9.7) 코로나19 대응 NH건설현장 관리 및 운영매뉴얼 배포(9.24)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사육 관리방안 및 임직원 행동요령 개정(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철저(11.09) 1분기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관련 NH 희망나눔카드 시행(2.1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 안내(2.2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 안내(2.26) 포스트코로나 시대, NH대응 전략수립 - 기존사업 프로세스 디지털화 + 미래사업 융복합화 전략수립(12.4)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사업소 등 방역관리 개선 방안 (12.08)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요청(12.2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한 임대인 운동' 적극 동참 - 공공기간 임대료 감면 연장 임원 임금 30%반납으로 코로나19 극복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대형꽃바구니 비치 등, 화훼농가 지원, 도시락DAY 등 지역상권 지원 실시 대구경북 의료진 숙소 지원 방안 수립 및 성금 기탁 (공가 184호, 성금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원 코로나19 극복 생필품 희망카드 나눔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지원금 기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안심학교 만들기 경남지역 사회공헌 (공기청정 살균기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관 명절음식 및 선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건설임대 공공어린이집 지원 연장(안) 수립 시행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영사 릴레이 언택트 특강
--	---	---	---	---

확진자 현황관리

일일상황보고(1~326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확진자 수(명)	9,786	3,013	11,012	36,915
전국 일 평균 확진자 수(명)	136	33	120	401

2021년	
델타 변이 확산 및 유행	
'21.5~	
1차 백신접종 시작 (취약계층, 2.26~)	2차 백신접종 시작(고위험군 3월~), (만65세이상 및 시설이용자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 게시판 1~2차 등재(1.27~) 코로나19 직원 감염발생에 따른 부상장 당부사항 게시(2.15) 비상상황근무방안(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예방접종 후 안내 및 2분기 예방접종 시기 안내 게시(3.22~)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 (3차, 5.3~)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 (4차, 6.9~)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 (3차, 5.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관련 구내식당 운영안내 게시(1.5) 지역사회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관련 NH 희망나눔카드 시행(2.1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 안내(2.2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 안내(2.26) 진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분사 실내 체육시설 이용 중지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대응 단체헌혈 참여직원 모집 실시(4.6) 1분기 코로나19 현황 분석 및 당부사항 전파 실시(4.8)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북우치리기준 안내 게시(6.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 안내(2.26)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 변화전담 세미나 실시 (6.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 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극복 관련 캠페인 실시 (립뷰마스크, 생활품 키트 지원)
--	---

일일상황보고(327~691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확진자 수(명)	42,353	53,881	154,309	319,529
전국 일 평균 확진자 수(명)	471	592	1,677	3,473

종합대응 프로세스

2021년	
코로나19 유행 (4차 대유행)	오미크론 변이 유행
'21.7.7~	'21.11~
전 국민 백신접종 시작(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임직원 복무관리 지침 게시(6.30) 수도권, 비수도권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사항 게시 (7.15) 변경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5차, 7.15~)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 (6차,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및 주요내용 변동에 따른 안내사항 게시(8.20)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정보 공유 (7차, 8.20~)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지침 변경 사항 안내(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 변경(11.8)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안내 (12.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 요청(7.2) 코로나19 방역수칙 퀴즈 이벤트 실시(7.5)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부사항 전파 실시(7.7) 코로나19 대응관련 구내식당 조별 운영 실시안내(7.9) 코로나19 어린이집 임대료 할인 추가 연장시행(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안내(9.6) 토지주택연구원 코로나19 운영(9.8) NH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권고안내(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시행(10.25~)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안내 게시(11.0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당부사항 안내 게시(11.16)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임직원 당부사항 안내 게시(11.18)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과 안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12.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피해농가 돕기 (친환경 꾸러미 박스 배포, 농산물 꾸러미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드코로나 안전문화행사 개최 (코로나19 예방, 공연, 강연, 캠페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입주민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 시행 (발코니 콘서트)
---	--	---

일일상황보고(692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확진자 수(명)	12,464,088	4,985,437	-	-
전국 일 평균 확진자 수(명)	138,490	84,4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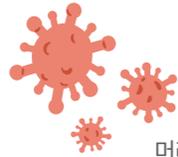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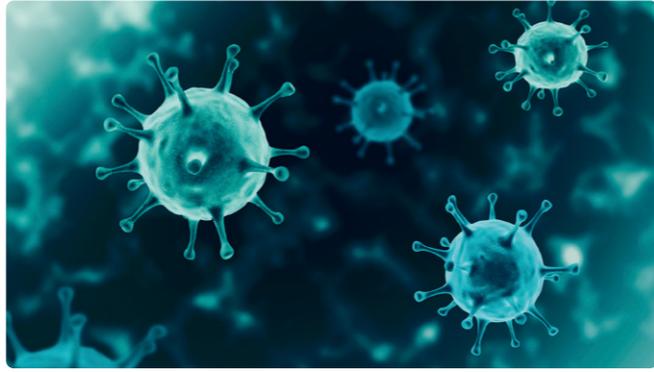
2022년		
코로나19 유행,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우세종화 (5차 대유행)		전국, 오미크론 BA.4-BA.5 변이 (6차 대유행)
'22.1~	'22.4.18~	'22.7~
코로나19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 체제 전환(1.26~. 2.3 전면 전환)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 전환 계획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4.18~)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NH 특별강화방안 시행(1.25) 코로나19 자기검사키트 도입 시행(2.11)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2.28) 정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NH특별강화방안 변경(3.3) 정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NH특별강화방안 재변경(3.16) 합숙소 등 거점직원 확진에 따른 임시숙소 도입 시행(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NH 특별강화방안 변경 알림(4.25)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지침 변경사항 안내(4.2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송부(5.18)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무 연장 알림(5.2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NH 대응방안 등 알림(7.21)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안내(8.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임직원 당부사항 안내 게시(1.21) 임직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임직원 당부사항 추가 안내 게시(2.16) NH특별강화방안 일부 수정 및 자기검사키트 신청안내(2.1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프로세스 제작 및 게시(2.16)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업무용 차량 방역시행(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안사항 조치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개최(3.22) 코로나19 확진 직원을 위한 치료키트 배송 서비스 실시(3.23)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 추가신청 안내 게시(5.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입주민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 시행 (유튜브 강연)
--

일일상황보고(692보~)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확진자 수(명)	12,464,088	4,985,437	-	-
전국 일 평균 확진자 수(명)	138,490	84,499	-	-



머리말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대응
 한눈에 보는 LH 코로나19 대응



1 코로나19 개요와 현황

1-1	코로나19 개요	022
1-2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	024



2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코로나19 대응

2-1	LH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028
2-2	코로나19 종합 대응 방안 수립	029
2-3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030
2-4	안전기획실 대응 방안	031
2-5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	
①	임대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대응계획	036
②	경제와 방역을 모두 책임지는 건설현장	038
③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확진 예방과 대응	040
④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살리기	042



3 코로나19 대응 사례

아산에너지사업단 대응 사례	046
----------------	-----



4 코로나19 실적 및 평가

4-1	임직원 관리 및 조치	054
4-2	2020~2021 분야별 지원 실적	058
4-3	코로나19 대응 평가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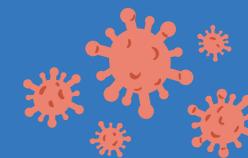
5 외부 전문가 자문

국토교통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이준 박사	082
----------------------	-----

Appendix.

1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090
2 >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안내문	091
3 > 코로나후유증 QnA	092

* CORONAVIRUS
2022
1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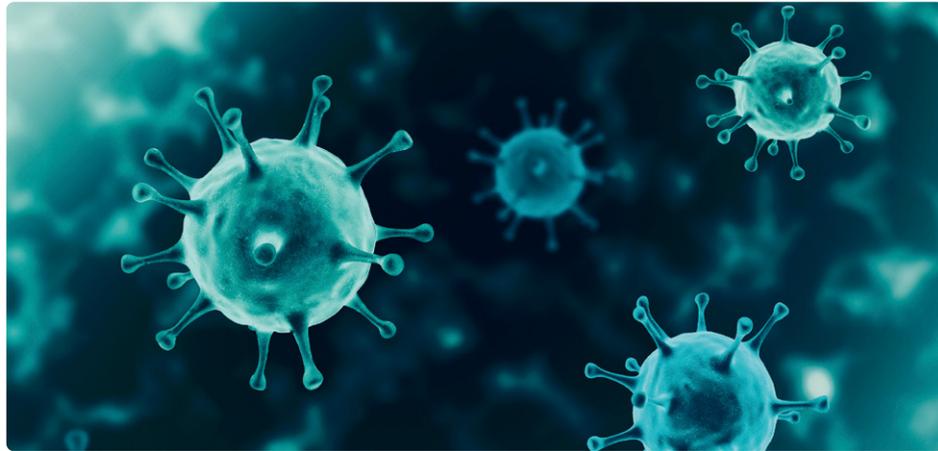


PART1 코로나19 개요와 현황



- 1-1 코로나19 개요
- 1-2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개요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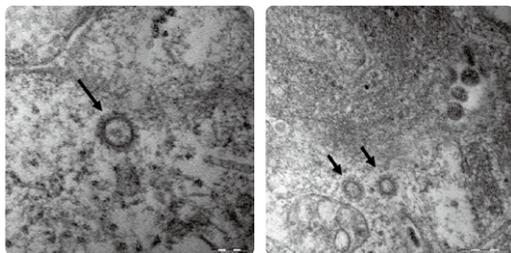
1-1. 코로나19 개요

① 코로나19란?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 감염 시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며, 무증상 감염 사례 역시 발생

② 전파 경로

-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비말 이외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
-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공기 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



국내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

③ 잠복기

- 2~14일(평균 5~7일)

④ 증상

- **임상 증상** :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 등 다양
-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그 외 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⑤ 치료

-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 시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 시행
- 2020년 12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백신접종

⑥ 전세계 치명률

- 0.1~25%(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

코로나19 예방법

How to prevent COVID-19

식약처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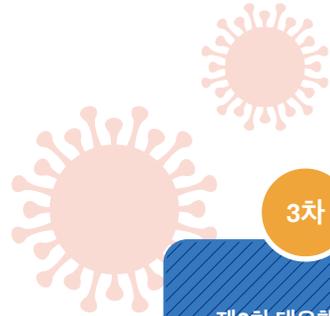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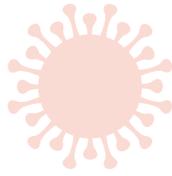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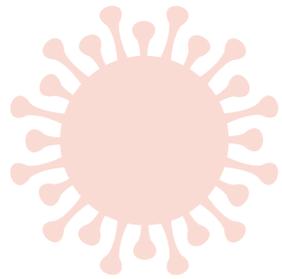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1-2.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



3차
제3차 대유행(전국)

('20년 11월~2월)
61,724명

2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제2차 대유행(수도권)

('20년 8월~11월)
13,635명
8.27/441명
12.25/1,2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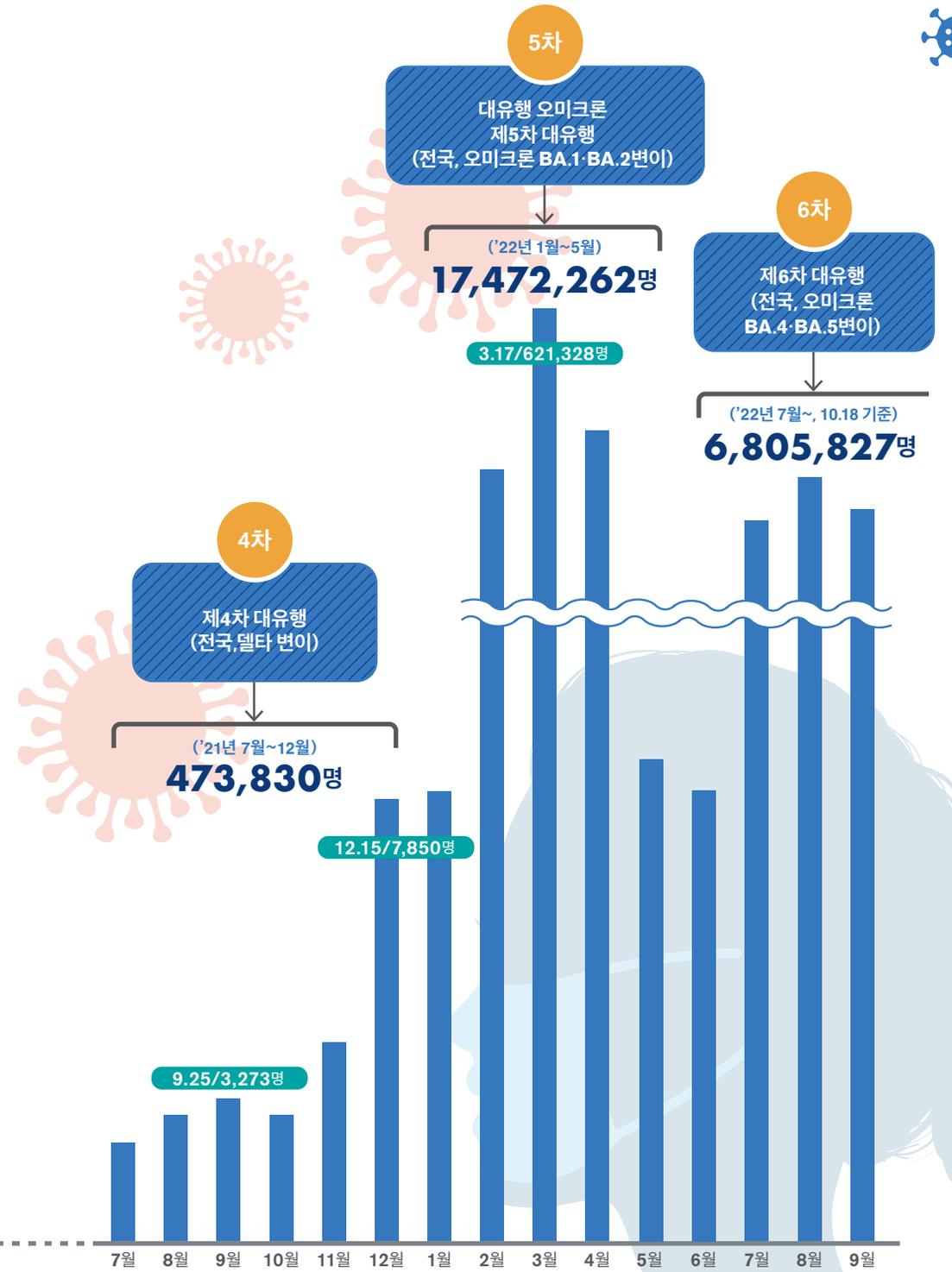
1차
신천지 대구교회발 제1차 대유행(대구·경북)

9,775명 ('20년 2월~3월)
2.29 / 909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20년

20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22년



* CORONAVIRUS DISEASE 2019

PART2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코로나19 대응



- 2-1 LH 비대위 구성·운영
- 2-2 코로나19 종합 대응 방안 수립
- 2-3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 2-4 안전기획실 대응 방안
- 2-5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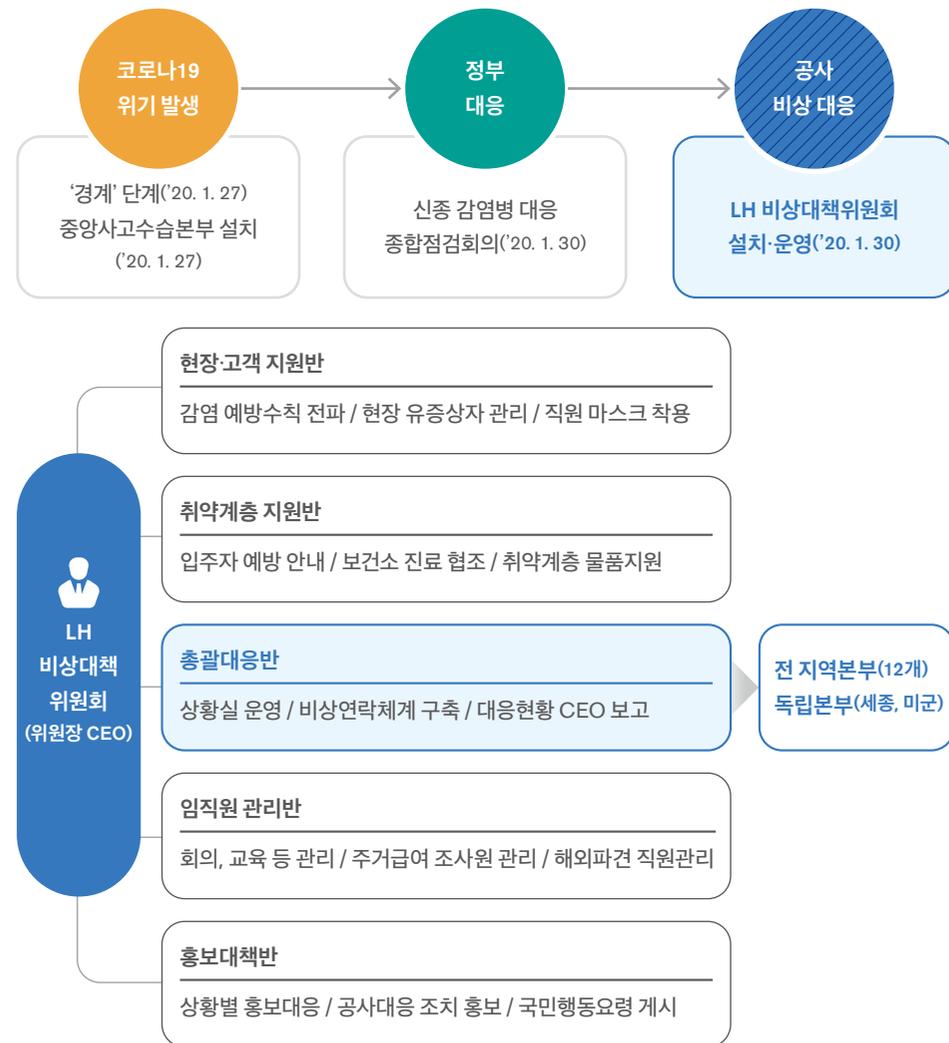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코로나19 대응

2-1. LH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20.1월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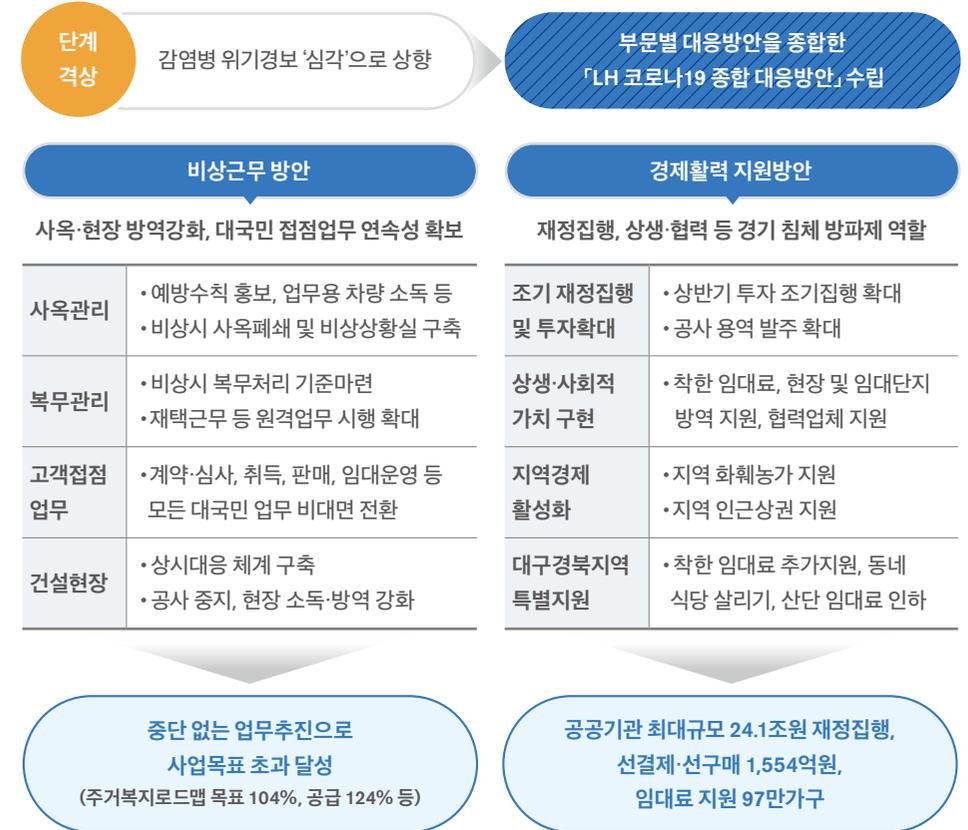
공사는 2020년 발생한 신종 사회재난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장기화 등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속성 유지, 주거복지서비스 등 차질없는 정책 수행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역강화를 비롯한 비상근무, 경제 활력 지원 등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분야별 대응방안 수립



2-2. 코로나19 종합 대응 방안 수립

①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황에 따른 「LH 코로나19 종합 대응방안」 수립('20.3월)



②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

· 전국에 LH 자산 및 건설현장이 산재되어 있으며, 대국민 접촉업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필요





2-3.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긴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 보고 (930보)	보고서	실장 ○○○
UP SAFETY 안전기획실			부장 ○○○
			055-0000-0000
			2022.10.31(월)

1. 코로나19 주간 리포트

○ 확진자 발생 현황 (일주일간 총 245,854명 확진, 일 평균 35,122명 확진)

구분	계	10/25(화)	10/26(수)	10/27(목)	10/28(금)	10/29(토)	10/30(일)	10/31(월)
확진자	245,854	43,759	40,842	34,987	35,924	37,321	34,511	18,510

- 10/31(월) 발생현황 **신규 18,510명 = 국내 18,454명(진주 269명) + 해외 유입 56명**

2. 임직원 확진자, 의심자 발생 현황

구분	10/25(화)	10/26(수)	10/27(목)	10/28(금)	10/29(토)	10/30(일)	10/31(월)
확진자	X	X	X	X	-	-	X
의심자	-	-	-	-	-	-	-
계	X	X	X	X	0	0	X

- (금일확진자) 본사 X명, 인천 X명, 경기 X명, 대구 X명

구분	계	의심증상	동거인 확진	부서 내 확진자 접촉	확진자 밀접접촉
본사	X	X	-	-	-
지역본부	X	X	-	-	-
계	X	X	0	0	0

3. 코로나19 관련 일일 대응현황 및 주요내용

○ (임직원 현황) **확진자 X명 증가**

구분	전일	증·감			금일	비 고
		신규	해제	계		
확진자	X	X	X	+X	X	치료 중인 자
의심자	-	-	-	-	-	
계	X	-	-	-	X	
임직원 누적확진자	X	신규 확진자 X명 발생			X	· 20년 : X명, 21년 : X명 · 22년 현재 : X명

4. 임직원 당부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접종당일 공가)
- 근무중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시간(식사 등) 가능한 짧게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발열, 인후통 등)시 출근하지 않고 검사하기

LH 비상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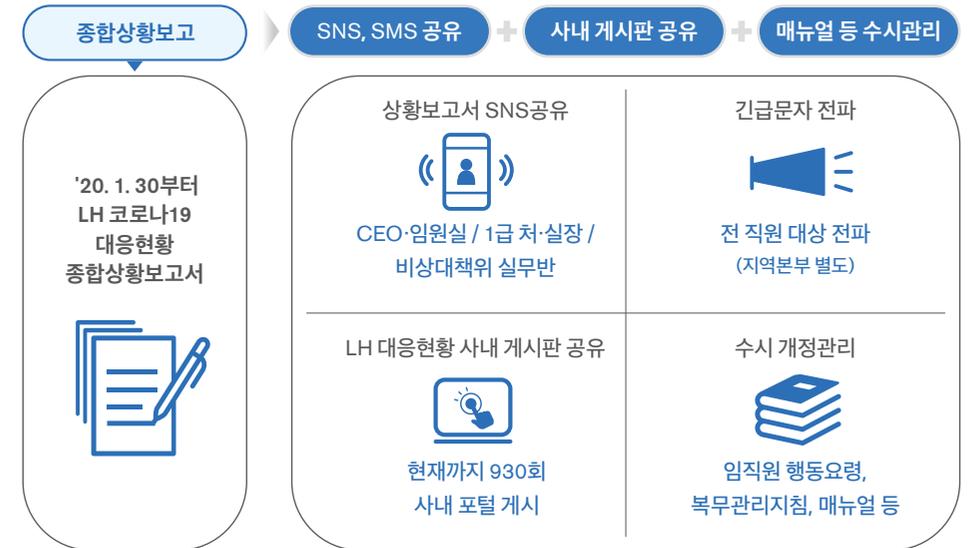
2-4. 안전기획실 대응방안

1. 단기대응 및 상황관리 방안

- 본사 '안전기획실' 및 지역본부 '안전관리단'에 상황실 설치, 본·지사 간 보고체계 구축
- '안전관리단'이 일일 상황 점검 및 '안전기획실' 보고
(감염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안전기획실은 CEO 즉각 보고 및 상황 대처)
- 감염자 발생 시 해당부서의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완료까지 본사 및 지역본부 비상근무 실시
- 현장 협업체계 구축(보건소,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 단계별 대응방안 및 부서별 협조(임직원·현장근로자 등에 대해 예방조치 및 행동요령 시달)
-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2. 감염자 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대응현황 전사 공유

- 임직원 행동요령 전파(SMS, SNS, 게시판, 문서시행 등)



- 사옥관리 등 예방활동(본사·쏘 지역본부 동일하게 이행 중)

출입구 체온측정	사내행동요령	사옥소독	세정제 비치
식당 배치(지그재그)	사회공헌(단체현열)	지역경제살리기(화훼지원)	지역경제살리기(개인화분)
홈페이지 고객안내문	본부별 비상대책회의	공공발주, 임대료감면	건설현장 예방활동

③ 확진자 발생 시 자체 대응방안('20.2월)

- 공간의 폐쇄는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르되, 기간은 '소독일+1일', 본사 3일, 지역본부 2일 사옥폐쇄

✦ 비상대응 프로세스



④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시행 알림

✦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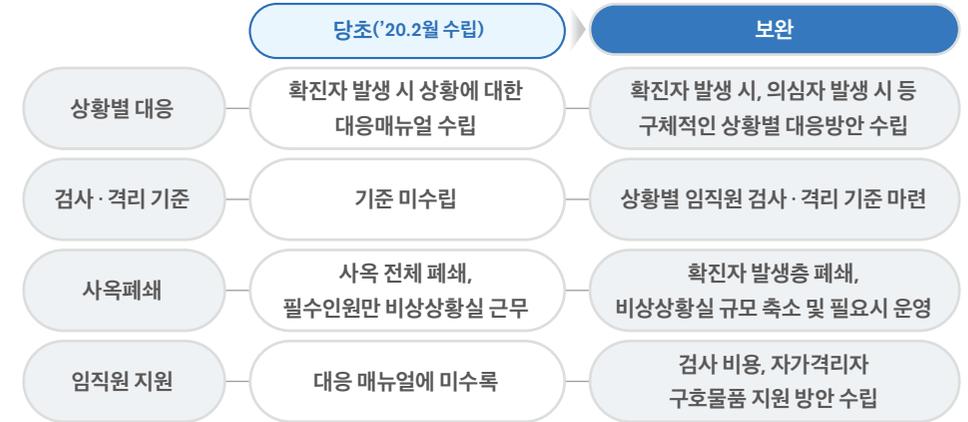
⑤ 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내용 홍보이벤트 추진

- 사내 게시판 퀴즈이벤트 추진

추진개요	백신접종 관련 방역수칙 조정내용에 대한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하여 상품 증정
게시방법	LH포털 설문 활용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6월 홍보이벤트 실시 및 설문조사 게시(10일간) • '21. 7월 추첨 및 상품 증정

⑥ LH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21.5월)

-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 신속한 감염자의 식별을 위해 임직원 선제적 검사 실시

구분	임직원		외부인	
	확진자 발생 시	의심자 발생 시	확진자 방문 시	의심자 방문 시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층 폐쇄 • 발생층 전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직원 검사 • 발생부서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부서 검사 • 방문부서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직원 검사 • 방문부서 격리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PC 화면보호기 콘텐츠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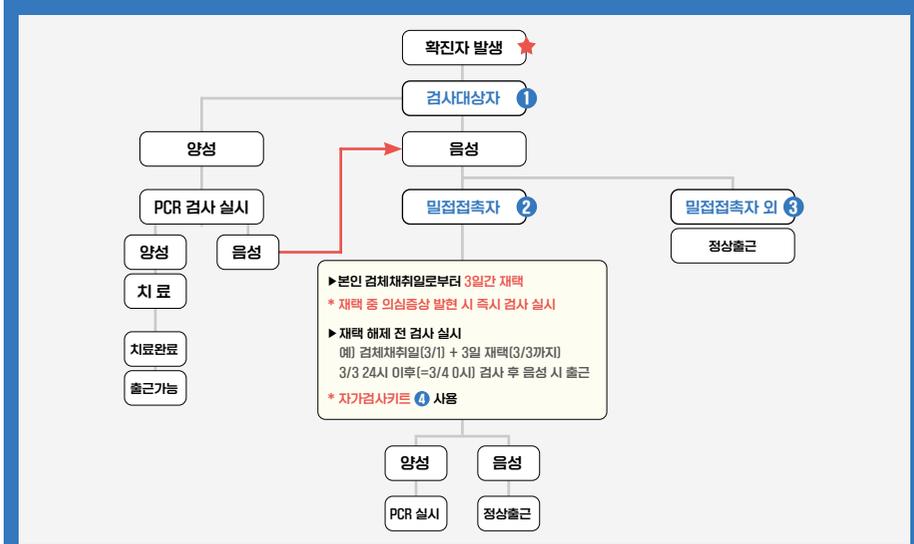


⑧ 자가검사키트 전면 도입('22.2월)

- (정부지침) 22년 2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역량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한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하고, 일반 의심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실시
- (LH 임직원) LH 코로나19 대응 프로세스에 따른 검사대상자와 의심증상 발현자는 각 부서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즉시 검사 실시, 상시 고객접촉 부서는 의심증상 발현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⑨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22.2월)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검사대상자 통보 지연에 따른 사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사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확진자 발생** → 접촉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① **검사대상자**

확진자의 증상발현 또는 확진판정일 이틀 전부터 접촉한 직원*

- 확진자가 무증상 확진인 경우 : 확진판정일 이틀 전부터 접촉한 자

예) 확진자가 3/1 확진판정 시 2/27 이후 접촉한 자

- 확진자가 유증상 확진인 경우 : 증상발현 이틀 전부터 접촉한 자

예) 확진자가 2/27 증상발현이고 3/1 확진판정 시 증상발현 이틀 전 2/25 이후 접촉한 자

*접촉한 직원의 범위 : 확진자 발생부서 전원, 확진자와 접촉자(식사동석, 카페이용, 출장동석, 주말버스 동승자, 사택 동거자, 확진자 발생부서 방문자 등)

①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무료) 또는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무료)

▶ 양성 : PCR 검사 실시 / ▶ 음성 : 밀접접촉자 분류

② **밀접접촉자** → 확진자와 근거리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접촉한 자

① ① 반경 2미터 이내 근무자, ②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확진자와 근거리에서 접촉한 자(식당, 카페 등 이용), ③ 확진자와 차량 동석(출장, 주말버스 등)한 자, ④ 확진자와 숙소 동거자, ⑤ 동거가족이 확진된 임직원 등(단, 동거가족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임직원은 동거가족 치료완료까지 공가)

- **접종완료자 재택근무 사유** : 확진자와 접촉 후 최초검사서 음성이나, 임직원중 재택근무 전환 이후 의심증상 발현으로 양성판정 사례 다수 발생

- **접종완료자 재택근무 취지** : 임직원과 접촉을 차단하여 사내확산 방지의 목적으로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함

③ **밀접접촉자 외** →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 등 음성 시 출근 가능

④ **자가검사키트**

선별진료소(자가검사키트 무료), 호흡기클리닉(신속항원검사 무료) 또는 부서내 구입한 자가검사키트 사용



⑩ 합숙소 동거임직원 확진 시 숙박시설 제공('22.3월)

• 2인 이상 직원이 거주중인 합숙소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동거 중인 임직원은 2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확진자와 동거 중인 직원이 자택으로 귀가하여 확진직원의 격리해제까지 재택근무 시행

② 확진자와 동거 중인 임직원이 숙박시설 이용

✦ **숙박시설 이용 절차**



확진 사실을 동거임직원과 코로나 담당부서*에 통보

* 본사 : 안전기획실, 지역본부 : 코로나 담당부서



확진자의 합숙소 거주정보(00단지 호, 동)를 합숙소 담당자에게 전달



확진자와 동거임직원에게 합숙소 내 확진자 발생 통보



• 확진자 발생 통보 이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 시 부서내 법인카드로 숙박시설 이용

• 확진자 격리해제 이후 합숙소로 복귀





2-5.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

① 임대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대응계획

LH 주거생활서비스처에서는 공공임대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대응방안을 변경하였으며, 입주민 자가격리 세대 생필품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주거급여 주택조사 대응방안 변경

주거생활서비스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및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주거급여 주택조사 대응방안을 변경했다. 정부의 점진적 방역조치 완화·해제에 맞춰 전 사업소 방문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사업소 내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문조사를 중단하거나 유선조사로 이를 대체하였다. 또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으로 비상계획 가동 등 필요 시 주거복지사업처장 판단 하에 기준 수립 후 시·군·구 별 방문조사를 부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 코로나19 단계별 주택조사 대응방안



*필요 시 부분중단 가능(문서시행)

○ 확진자 등 자가격리세대 생필품 지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입주민들의 일상생활 유지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긴급 생필품을 지원했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에 따라 LH 공공임대*내에 자가격리 중인 세대가 그 대상자로, 격리기간 동안 세대당 30만원 이내 생필품 등**이 지원됐다. 생필품 지원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선 등으로 격리 등의 내용을 통지했으며, 자가격리 여부 및 안부 확인 후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지원물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 건설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포함

** 식료품(쌀, 생수 등), 위생용품(마스크, 소독제 등), 상비약(해열제 등) 등

✦ 생필품 지원 추진 사항

'20.2.6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예방 홍보활동 강화, 위생용품 등 지원
예방수칙 현수막 외 적외선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현장근로자용) 등 위생용품 지원

'20.2.20 확진단지 방역소독 및 입주자 관리강화
확진단지 내 입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전세대 마스크 지원

'20.2.28 관리소 폐쇄 등 비상대응계획 체계 마련
손소독제 지원, 확진단지는 승강기 비치용 손소독제, 직원용 마스크 추가 지원

○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할인

코로나19에 따른 휴원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할인하여 보육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임대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6개월간('20.3.~'21.6.) 월 임대료의 25%를 할인했으며 대구경북은 50% 할인이 추가 적용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단지 내 민간위탁 어린이집 235개소를 대상으로 21년 하반기인 6개월간('21.7.1~'21.12.31) 임대료 할인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 어린이집 임대료 할인 시행 내용

할인 기간	할인율	대상	할인액(추정)	비고
'20.03월~'20.08월(6개월)	25% (대구경북50%)	264 개소	2.9억원	지원처-1083 (2020.03.18)
'20.09월~'20.12월(4개월)	25%	261 개소	1.9억원	지원처-4460 (2020.10.12)
'21.01월~'21.06월(6개월)	25%	263 개소	2.9억원	지원처-160 (2021.01.12)



② 경제와 방역을 모두 책임지는 건설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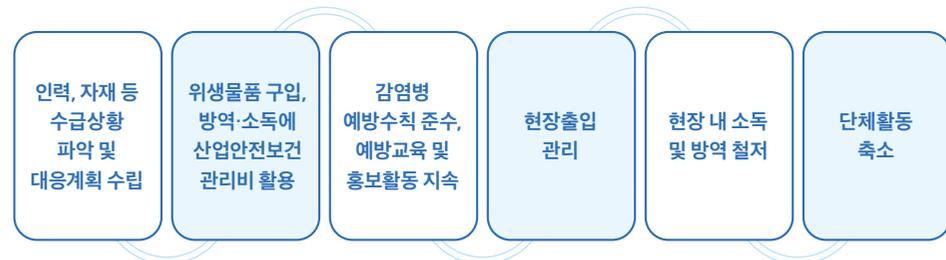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사업이 중단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에 따라 각종 신용평가 기관은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기침체와 복합불황을 우려했다. 이에 LH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 선도적 건설현장 대응요령 및 매뉴얼 전파

건설안전처에서는 '20.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일 당시 신속하게 LH 건설현장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요령을 수립한 것에 이어 '20.9월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건설현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예방단계에 있어서 출입관리 및 방역에 힘썼으며, 감염신고 후 의심환자를 격리하기까지 환자 발생단계 현장대응 요령도 전파했다. 또한 공사감독 행동요령과 출장업무 시행요령을 통해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시행을 우선 검토하고 출장일정 및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예방단계 현장관리



○ 공사중지 시 건설현장 계약조정 방안

LH는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발생 대응을 위해 계약조정방안을 시행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공사중지일과 기후여건 등에 의한 비작업일 합산일수가 계약 시 반영된 비작업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LH 공사중단지시 또는 연장가능일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연장일수에 한해 간접비를 증액하는 등 계약기간을 조정했다.

✦ 코로나19로 공사중지 시 계약조정 방안

구분	계약조정 방안
계약기간 조정	•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일 만큼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19.8.6) 이후 지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사유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가능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이전 지구) 규정상 계약금액 조정 불가하나, LH 공사중단지시(공문)가 있을 경우 공사연장기간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조치 -공사 중지되지 않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 자재조달 어려움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건설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

LH는 자금 조기집행 지원 등을 위해 현장반입 자재비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계약예규에 따라 현장반입 시 50%만 기성인정되던 현장 맞춤형(교량용 자재, 특수구조물 등)을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확보를 위해 100% 기성을 인정했다. 공동가설공사 또한 재료비를 100% 조기 지급하였으며, 건설공사 기성대금 신속지급을 통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정식·약식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 시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건설업체 위기대응을 위해 건설현장 및 관련 협회 연락망 구성하는 핫라인을 구성했으며 부도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부도현장과 본사 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을 활용한 근로자 보호 방안 역시 마련하였다.

✦ LH 건설현장 경제위기 대응방안

구분	계약조정 방안
자금 조기집행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반입 자재비 지급기준 완화 ② 기성검사 기간 단축시행 • 현장반입 가공자재 100% 기성인정 • 공동가설공사 자재비 100% 조기지급 ③ 직접구매 자재 조기발주 관리 ④ 자재수급 지연 시 중간공정관리일 조정
건설업체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 ⑥ 부도대응 시나리오 수립 ⑦ 부도현장-본사 대응체계 구축 ⑧ 하도급자 및 건설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③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확진 예방과 대응

LH는 임직원과 방문고객 등 사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복무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안전기획실, 총무고객처는 확진자 발생 시 자체역학조사, CCTV 분석 등 확진자 동선 파악 후 선제적인 임직원 검사 실시 및 사옥폐쇄와 소독범위 결정을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임직원 복무는 총 4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밖에 근무인원에 대한 대책과 주말버스 운행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제 확진자 발생 시에도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복무관리지침상 재택근무 시행비율

1단계	일반적인 경우	• 부서(부) 현원의 20%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부서(부) 현원의 30%(사무실 밀집도 고려 부서장 판단으로 상향가능)
3단계	사옥 내 확진자 발생 시	• 사옥폐쇄 시 필수요원 외 전원
4단계	사옥폐쇄 후 개방	• 부서(부) 현원의 50%(개방 후 1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요령과 복무관리지침 안내

인사관리처는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임직원 행동요령과 복무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공직기강 확립 및 개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대면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현, 불요불급한 교육, 행사, 출장 연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내하여 근무시간 및 개인생활에서도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복무관리지침 19차[1차('20.2월)~19차개정('22.4월)]

- 공통사항 : 정부의 개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유형별 복무기준(19차 복무관리지침)

유형	세부 유형		복무처리 (병가, 공가는 휴일포함일수)	
확진	1-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병가 방역당국의 격리해제까지 병가 (검체채취일 포함 7일 격리) - 확진자는 격리해제 검사 실시하지 않고 격리해제 시 정상출근 단, 증상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재택근무 가능
		동거인 확진 (가족, 사택 동거임직원 등)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접종 구분 없이 동거인 확진 판정 인지 즉시 검사 후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근태처리 도보 이동 시 : 외출 또는 국내출장 복무처리 차량 이동 시 : 외출 또는 근무지 내 출장처리 ** PCR 검사 시 근태처리 검사당일 : 공가 결과대기 : 재택근무
격리	3-1	본인 격리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공가 방역당국의 격리지정일까지 공가
		의심증상발현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보건소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검사 시 근태처리는 2-1에 따름)
검사	4-1	의심증상발현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보건소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검사 시 근태처리는 2-1에 따름)
	4-2	동거인 검사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정상출근 재택근무 동거인의 검사결과 관계없이 정상출근 단, 동거인 확진 시에는 2-1에 따름 동거인의 검사결과 확인까지 재택근무
기타	5-1	해외 여행력이 있는 직원		재택근무 또는 정상출근 귀국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귀국 이후 격리해제 시까지 재택근무 (격리 의무 없는 경우 정상출근)
	5-2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연기(온라인 개학 포함)로 자녀 돌봄 필요		재택근무 재택근무(원칙), 자녀돌봄휴가 사용가능
	5-3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재택근무 고위험군* 재택근무 사용가능 * 임신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5-4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 백신접종 당일 공가 병가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 시* 병가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④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공헌과 지역경제 살리기

LH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카드도 제작 및 배포하였다.



○ 지역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추진

LH는 정부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 업무간담회 등 개최와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원을 추진했다. 인근상권 활성화와 화훼농가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인근상권 활성화의 경우 본사는 요일별로 1개 본부를 선정하여 업무간담회 등과 연계하여 인근 소규모 음식점을 이용하고, 지역본부는 본사에 준하여 자체 계획 수립·시행했다. 화훼농가를 위해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무실 및 소규모 행사 개최 장소에 분화·수반을 비치하고 내방고객에게 꽃송이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영난에 처한 화훼업계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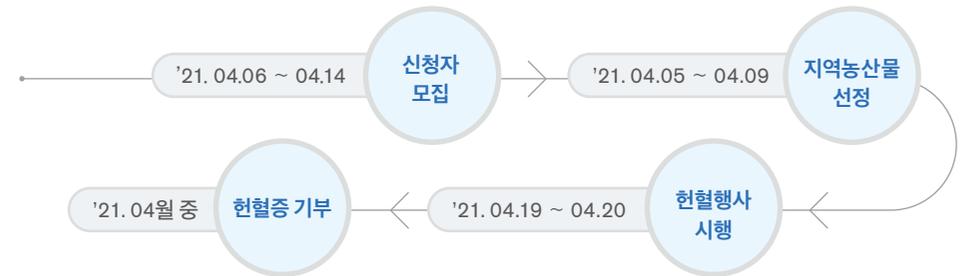
✦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계획

구분	내용	주기	비고
소규모 음식점 이용 활성화	·본부별로 소규모 음식점 이용 요일제를 지정하여 업무간담회 개최와 연계된 점심은 외부 음식점 이용 장려	월2회	지역·사업본부 등 부서별 자체시행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석식 구내식당 휴무일을 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소통·화합을 위한 업무간담회 개최	월2회	노사협력처·사옥 관리 자회사와 협조 필요
가정의 날 확대시행 등 (장기)	·가정의 날을 현 주1회에서 주2회(수·금)로 확대 시행하여 외식·문화관람 등 지역상권 촉진 유도	주2회	인재개발원·인사관리처 등 협조 필요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실, 각종 교육·회의 장소 및 공급계약 장소, 홍보관, 박물관 등 수반 및 분화 비치	주1회	부서별로 선호하는 종류의 화훼 구매
고객 꽃송이 증정 이벤트	·공사 주택·토지 공급계약 고객 홍보 물품으로 꽃 활용 ·지역·사업본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꽃송이 증정	매일	지역 화훼농업을 통해 구매하여 농가 직접지원

○ 단체헌혈 행사 실시

총무고객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체헌혈 취소 등으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적정수준의 혈액 보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단체헌혈 행사를 시행했다. 혈액원으로부터 헌혈차량 3대를 지원 받아 진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헌혈을 시행하였으며, 4월 19일~20일 양일간 시간대를 3구간으로 나누어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수칙 준수했다. 참여자 혜택으로는 헌혈 완료자 소속부서 사회공헌활동시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농가 지원과 연계하여 1인당 2만원 이내의 지역농산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단체헌혈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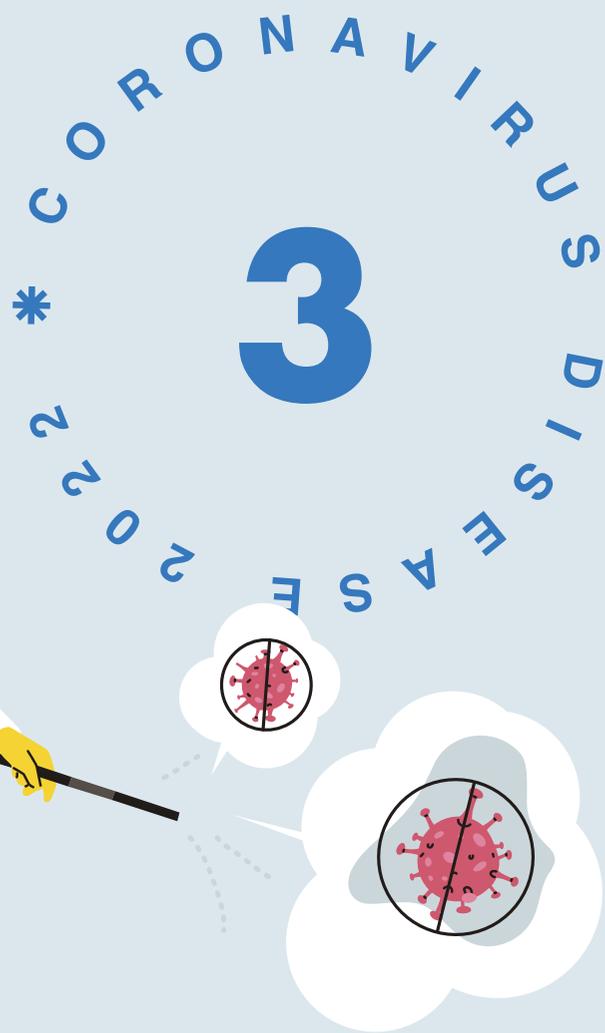


○ LH 희망나눔카드 제작 및 배포

총무고객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료급식 중단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경상남도, BNK경남은행,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LH 희망나눔카드(약 5억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경남지역 취약계층 5,000세대에게 배포되는 카드는 지역화폐(선불카드) 10만원으로, 백화점, 홈쇼핑 등은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하여 소상공인 지원효과 역시 거둘 수 있도록 계획됐다.

✦ LH 희망나눔카드 사업추진체계





PART3 코로나19 대응 사례



아산에너지사업단 대응 사례



코로나19 대응 사례

아산에너지사업단 대응 사례



1 개요

아산에너지사업단 직원의 확진으로 인해 아산에너지사업단 운전원 대부분(23명 중 20명)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정→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집단에너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및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운영인력 대응방안 수립

2 아산에너지사업단 시설 개요

공급대상	주택용 20,354호, 업무용 9,609호
생산능력	325.24Gcal/h(최대 8만호까지 열공급 가능한 능력)
근무현황	중앙제어실 운전팀은 5개조 25명으로 운영(5교대)

3 사전조치

- 해당직원 확진 판정 전인 11.5(목) 오전 사업단 자체 방역소독 시행 및 시설운영 지속방안 수립
 - 사업단 내 비상대책본부 가동, 접촉직원 격리조치
 - 근무 교대조 재편성, 추가 격리자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 화학방독면 긴급 수급(대전에너지사업단 15EA, 자체보유 4EA)
 - 외부인 사업단 출입 제한
 - 운전팀 방호복 착용, 일반직원 KF94마스크 의무 착용 후 근무
 - 재택근무 확대 시행
 - 구내식당 한시적 운영중단 * D레벨 방호복 200벌, 화학방독면 19개 확보



4 시설운영방안 및 비상대응 대응프로세스

- 업무 연속성** 에너지시설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건소 감염병대응팀과 긴밀히 협의 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에 지장 없도록 조치
- 기본 계획** 사업장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운영방안 시행
- 단계별 계획**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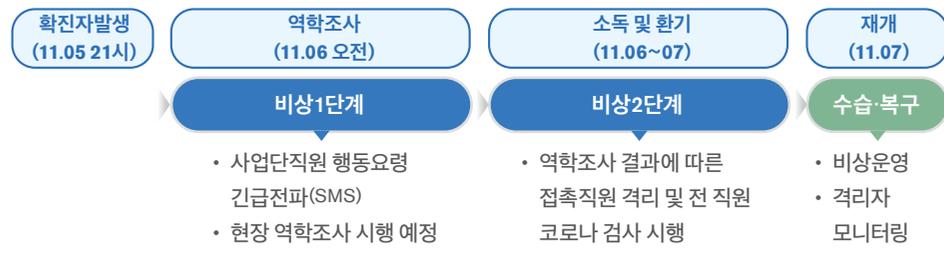


✦ Process Procedure



※ 운전 시 : 4명, 비운전 시 : 3명 배치
 ※ 대규모 격리자 발생 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대전에너지사업단 및 외부용역 투입방안 고려

✦ 비상대응 프로세스



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대응경과

11.5(목) 21시 34분	코로나19 확진판정(직원 1인)
11.6(금) 09시~18시	전 직원(68명) 코로나 검사 시행 완료
10시	확진 직원 공주의료원 이송
11시~13시	아산시 보건소 현장 역학조사(1차) • 식당 및 확진자 사무실 점검 • 확진자 동선 CCTV점검 • LH직원 및 협력업체의 코로나 검사 현황 제출
17시	아산시 보건소 : 운전팀 9명 격리 통보 충청남도 역학조사관 : 운전팀 전원 격리 지시
18시	도시기반처 대전에너지사업단 직원 파견명령(6명)
16시~19시	전원 격리 불가(아산시 열공급 중단)에 따른 충남도 역학조사관 현장 역학조사 (2차)

11.7(토) 09시~18시	<p>보건소 담당자, 시의원, LH 대책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실 코호트 격리논의(검사결과 추가 확진자 없고, 격리자의 개별 공간 마련조건) • 보건당국은 비 접촉자 3명에 의한 운전 요구 • 정상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실 격리 후 시설운영이 현실적 방안임을 제시 • 운전실 격리논의(운전원 10명 검사결과 확진자 없고, 운전자의 개별 공간 마련조건)
11시	전 직원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12시	코호트 격리운영 방안 2차 협의(보건소, 충남도, 시의원 등) - 임시격리시설(카라반) 12동 설치 협의완료
11.8(일) 12시	<p>임시격리시설(카라반) 11동 설치 및 운영기간(11.9~11.18) 아산시 보건소와 최종 협의 완료 * 아산시 관리자용 1동 감소</p>
16시	<p>카라반 긴급확보(자정까지 10동 설치) 비상근무운영기간 방역물품 및 격리자 지원물품 준비 (노사협력처, 도시기반처)</p>
11.9(월)	임시격리시설(카라반) 및 동선분리시설 완료 예정



6 열공급현황

대응
방안

11.6일(금) 오전까지 가스터빈 최대가동으로 축열하여, 방역소독 후 12시간 폐쇄시간 동안 2만호 정상 열공급 가능

7 열공급 시설운영

설비
운영

축열조 방열운전으로 2일간 열공급 가능

11.7(토) 11시 축열조 완충에 따른 설비정지

11.8(일) 오전 PLB 약 1시간 운전

운전원
운영

운전실 격리 시 시설 운영을 위한 운전 필수인원 총 10명을 구성하여 사업단 내 유휴공간에 임시 격리시설 설치·운영

대체
인력

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11.6(금) 대전에너지사업단 비상 대체인력 5명 파견 조치

11.6(금) 사업단 근무이력 일반직원 대체인력 풀 확보



* CORONAVIRUS
DISEASE
2022
4



PART4 코로나19 실적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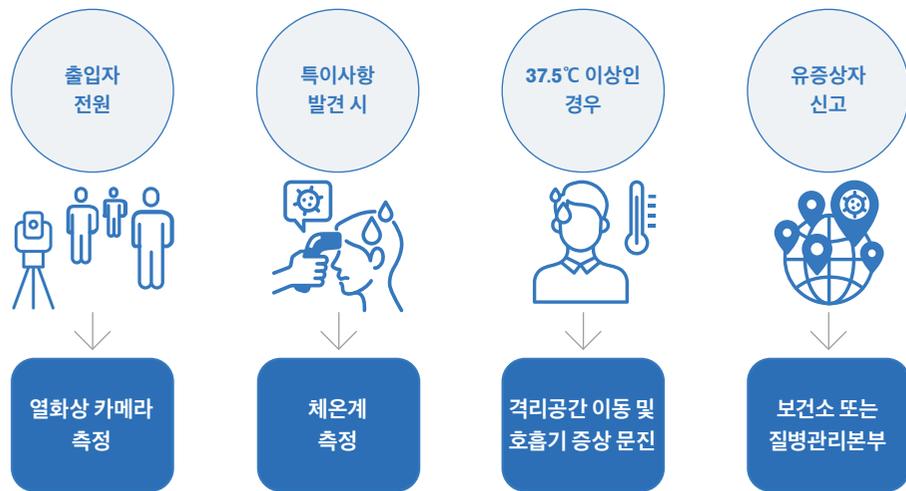
- 4-1 임직원 관리 및 조치
- 4-2 2020~2021 분야별 지원 실적
- 4-3 코로나19 대응 평가

코로나19 실적 및 평가

4-1. 임직원 관리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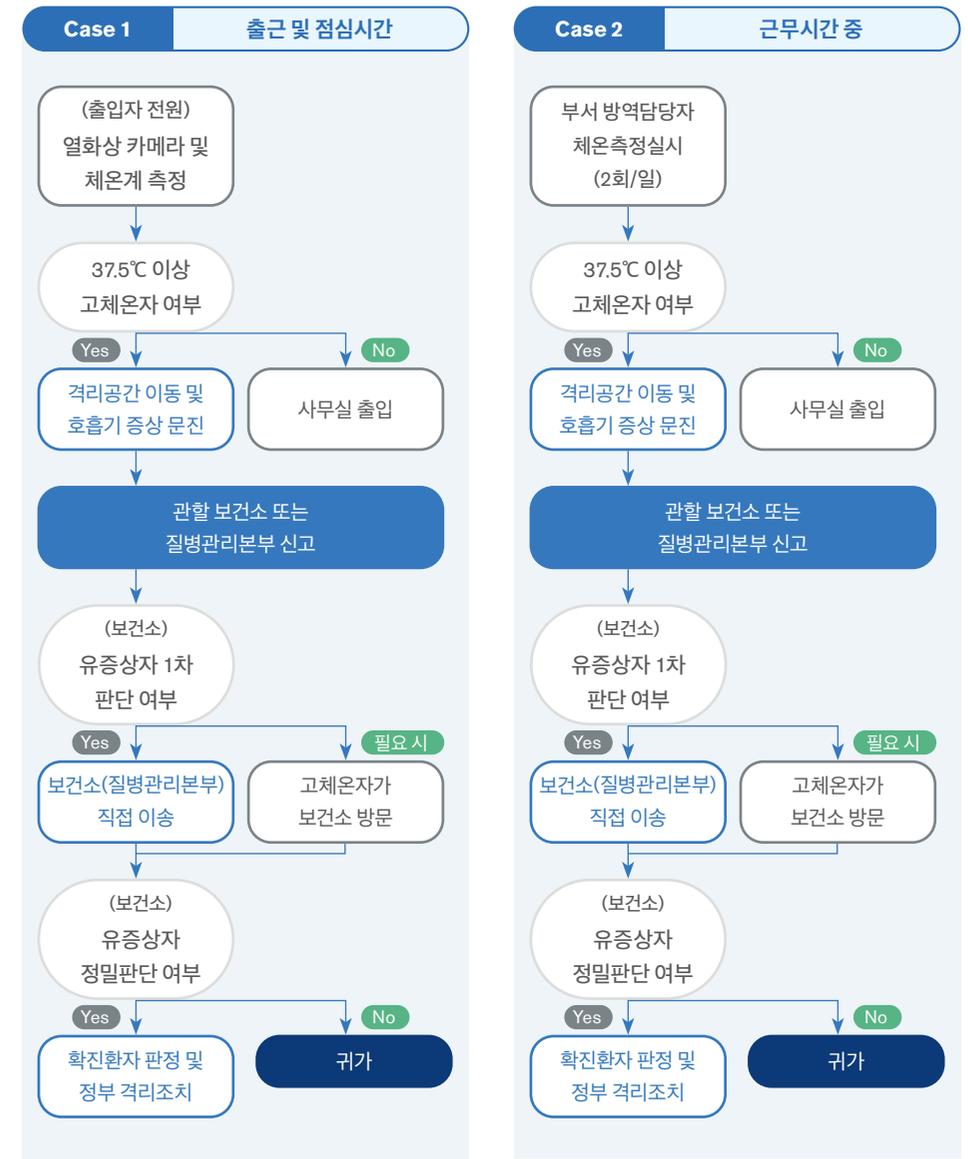
① 임직원 안전 분야 대응 방안 수립

NH는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본사의 전 부서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 및 비치했다. 취업규칙 제31조에 따라 유증상자 등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했으며, 통행 인원이 많은 본사 및 지역본부 사옥 주요지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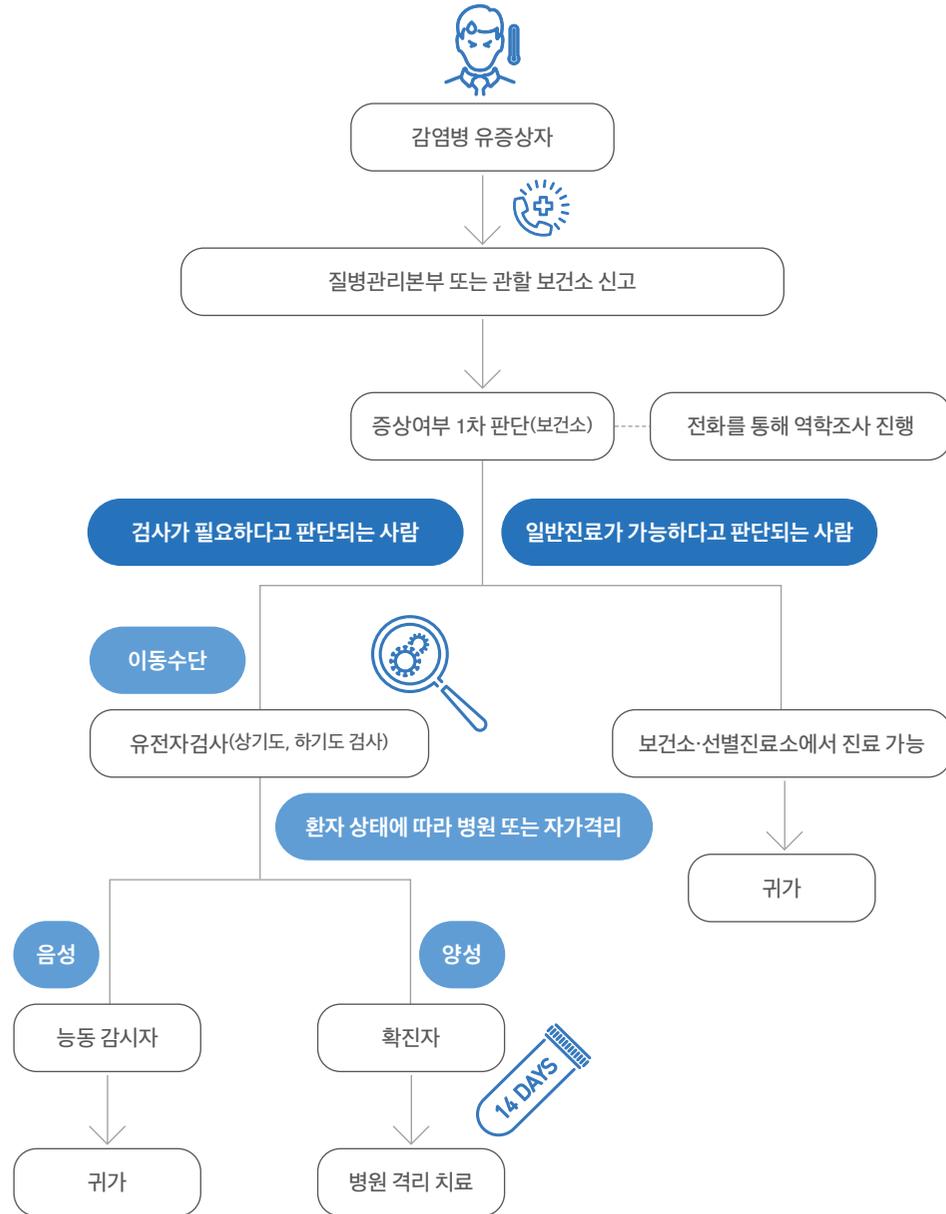
② 임직원 확진자 발생 시 상황별 대응 프로세스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절차도 역시 마련됐다. 출근 및 점심시간과 근무시간 중으로 나뉘어 관리되었으며, 보건당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확진자 판정 시 해당 사옥 직장 폐쇄 여부를 논의했다. 총무고객처에서는 사옥 최소 기능유지 필수인원 근무체계를 위해 전체 소독을 실시했다. 인사관리처에서는 정부의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확진자 및 의심자의 복무 관리가 진행됐으며 안전기획실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괄대응에 나섰다.



3 임직원 역학조사 및 업무 절차

감염병 유증상자가 발생할 시, LH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증상 여부를 판단한 후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방역당국 조사 절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 관할보건소에서 방문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확진자 동선 파악 및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밀접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확진자 대응 방안

2021년 하반기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전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지난 2년 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등을 기반으로 LH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임직원의 불편 및 피로 누적, 확진자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검사를 권고하는 등 그 대상을 축소했다.

- 의무검사 대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임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정상근무
-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 정부의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밀접접촉자 미분류
 - 부서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만 검사 실시
- 확진자 복무처리**
 - 코로나19 임직원 복무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지정일 까지 병가
- 확진자 격리해제 후**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5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예방 대응

회의, 행사, 교육 등은 모임 인원내 관계없이 정부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사옥출입 외부고객으로 인한 감염사례 방지를 위하여 체온측정은 현재('22.10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각 부서별로 확진자 발생 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심증상 발현 시 동료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출근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시행하고 개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당부했다.

*참석자 건강상태 체크, 소독, 환기, 참석자간 1m 거리두기 등

** LH 대응지침 변경, 감염병 대응 DB 구축 등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대응매뉴얼 수립의 자료로 활용

+ LH 코로나19 대응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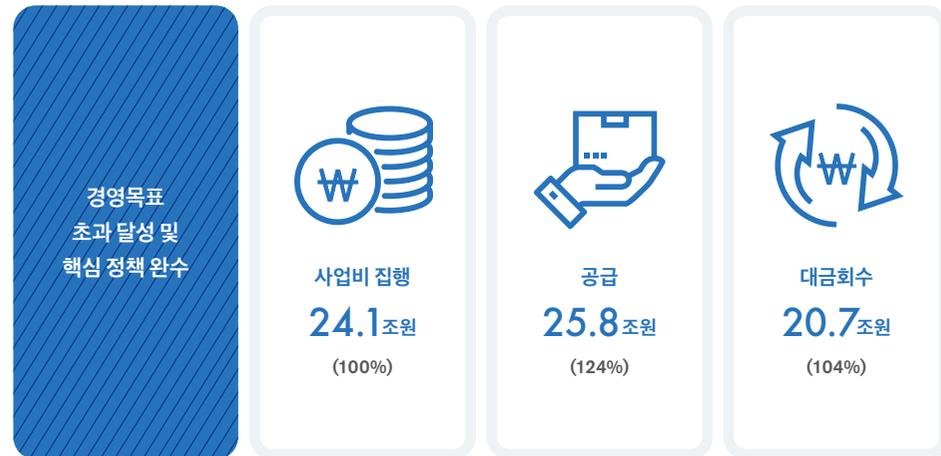
- **확진자 발생 시** : 밀접접촉자 미분류, 부서 내 코로나19 유증상자만 검사
- **동거인 확진 시** : 동거인 확진판정 인지 즉시 검사 실시, 음성판정 시 정상출근
- **회의·행사 등** : 모임인원에 관계없이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을 준수하여 시행
- **보고철저** :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발표 전까지 확진자 발생 시 보고철저

4-2. 2020 분야별 지원 실적

① 공공서비스 제공 및 주거복지서비스·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 신종 재난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확보

LH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시설 폐쇄로 인해 기능수행 장애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신종 재난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확보에 주목했다. 먼저 경영에 있어서는 위험 요소와 핵심 기능을 사전에 식별한 후, 인력, 공간, 장비 등 필수 업무 요소를 산정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에 돌고돌고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조성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업목표 등에 대해 사업비 집행 24.1조원(100%), 공급 25.8조원(124%), 대금회수 20.7조원(104%)이라는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정책도 완수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시 대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감안하여 LH는 근무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신종 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 빠르게 제시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온라인 전환을 통한 업무 혁신, 중단 없는 대국민 서비스

LH는 코로나19 사내 확산에 대비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상회의는 전년 대비 407%가 증가했고, 페이퍼리스 회의 및 보고도 정례화됐다. 또한 온라인 AI면접을 확대하고 필기시험을 일 1회에서 2회로 분산하였으며,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채용과 교육에 있어서도 이를 연기하는 대신 방식을 전환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해외사업에서는 화상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페루, 러시아와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LH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전 과정을 비대면 전환하여 업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썼다. 계약·심사는 평가서류를 온라인 제출하여 계약심사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했고, 심사실황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등 실시간 공개하였다. 토지 취득에서는 기본조사에 드론을 활용하고 보상계약 사전예약제를 실시했다. 판매에 있어서도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대했으며 모바일 계약을 도입했다. 임대 공급의 경우 마이홈포털 매물정보를 다방, 부동산114와 연계했으며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청약서류를 접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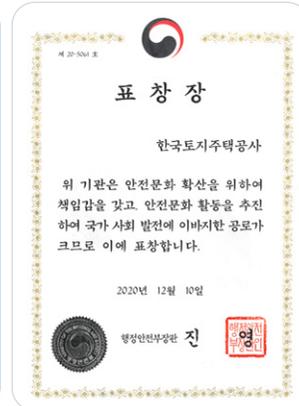
② 사옥부터 임대주택·건설현장까지, 맞춤형 방역 실시 및 지원 확대

○ 임직원과 방문 고객을 위한 사옥 방역 및 비상대응 프로세스 구축

LH는 고객방문부서에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였으며 매회 직원과 고객의 발열을 체크하고 업무용 차량을 소독하는 등 예방에 힘썼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 단계에 대비해서는 본사와 지역본부에는 비상상황실을 즉시 구축했으며, 비핵심시설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비상대응 프로세스 역시 체계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증상자 징후가 감지되어 확진자 발생 시 비상 1단계를 선포해 비상근무 요령 전파 후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안전문화 우수사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 실시
- 릴레이 '사랑이 꽃피는 헌혈' 캠페인 실시
- '동네식당 살리기 프로젝트' 실시
- 학생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 PC' 나눔 활동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 수행
- 감염병 등 신종재난대응 표준 업무프로세스 수립 및 활용



임직원과 방문고객의 출입이 잦은 사옥, 임대주택, 건설현장 등은 각각 맞춤형 방역과 지원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LH는 공기기업으로서 사옥과 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감염이 일어날 시 지역과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예산을 확대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비상 2단계 시에는 사옥을 폐쇄하고 소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일반 직원의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하였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930보(’22.10.31)에 이르는 일일 대응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아울러 단체인혈, 소상공인 지원, 희망나눔카드 배포 등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시행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문화 확산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임대주택 입주민 방역 강화, 건설현장 상시 대응체계 구축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감염을 막기 위해 경계단계에서 LH와 관리소 간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심각단계에서는 관리소를 폐쇄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본부별 비상대응반을 편성할 수 있게끔 준비했다. 아울러 관리소 현장 근로자에게 마스크와 소독제, 방역복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확진자 발생 단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협조했다. 또한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마음건강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젝트, 헬스케어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예방을 위해 위생용품을 구입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일 출입·건강상태 역시 관리했다. 비상 단계 시에는 현장 근로자에게 고지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소독과 방역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용역 대금의 선금 지급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59억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을 고려하여 간접비를 증액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사 기간 조정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상금은 미부과 되도록 개선하였다.





③ 국민 공기업의 사명,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

○ 임대주택 입주인 525억원 지원

LH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97만세대에 대해 전국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여 3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영구임대 105단지인 13.3만 세대에 대해 6개월간 영구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받아 32.7억원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고충을 겪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대구·경북 입주인 17.8만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18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 8.5만세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16.4억원을 감면했다. 영구·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10년 공공임대 등 9.3만세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구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받아 67.2억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1.7조원이라는 임대운영손실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임대조건 동결 등 525억원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총 97만세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것이 공공으로 확산되었다. LH 역시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전례 없는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공공임대 입주인은 물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까지 적극 지원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임대주택 입주인

총 **97** 만세대

525억원 지원

피해기업·소상공인

피해기업 **89** 억원 지원

소상공인 **47** 억원 지원

○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

LH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역시 면밀히 살폈다. 특별재난지역 임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4개사에 대해 1차 67%, 2차 25%로 총 4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전국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130개사에 대해서는 30.5억원에 해당하는 11개 지구 164필지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또한 판교 제2밸리 공공지원건축물 임차 중소기업 67개사에 대해 7.4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25%를 감면했다. 그 결과 임대산업단지 및 공공지원건축물 입주기업에 대해 42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임대단지·임대사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졌다. LH는 임대사가 입점 소상공인 등 1,729개사를 대상으로 대구경북 지역 50%, 기타 지역 25%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하여 35.9억원을 지원했다. 임대사가 운영사업자 2,260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여 3.4억원을, 임대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263개소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역시 대구경북 지역 50%, 기타 지역 25%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하여 7.7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임대단지·임대사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총 47억원 지원했다.

④ 취약계층 적극 지원, 긴급 의료·재해 예방으로 사각지대 해소 활동 전개

○ 취약계층 지원 및 성과급 온누리 상품권 지급

LH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복지를 실천했다. 먼저 지역경제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취약계층 및 주거복지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더불어 LH는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전통시장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LH 기부금을 재원으로 전통시장의 농산물을 전국 100여 개 푸드마켓에 비치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



전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온누리 상품권
3억원 지급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받는 가운데, 'LH 주거안정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전 직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성과급 일부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일자리 알선 등 생활지원
8,856가구

주거지원 2.4억원
97가구

온라인 교육기기 지원
학교 밖 청소년 70명 및
경남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200명

건강·놀이키트 지원
경남 취약계층
300가구 아동

도시락 지원
시흥시, 인천남동구 아동
총 300명

*학교 밖 청소년 : 초·중·고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제적·퇴학처분 등 사유로 정식교육 과정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핀 LH 주거안정 종합대책과 아동복지

LH는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긴급주거 지원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1년 이상 체납가구가 12% 증가한 가운데, 체납자를 보호하는 등 지원에 나선 것이다. 먼저 지자체, 남북하나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후 1년 이상 체납세대인 8,856가구와 1:1 심층 상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LH는 긴급생계비와 주거급여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재단, 시중은행, NGO 등과 협약기부금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LH 긴급주거지원위원회를 전 지역본부에 신설하여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8,856가구에게 일자리 알선 등 생활을 지원했으며 이 중 총 97가구에게 2.4억원의 주거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이 소외 받지 않도록 도시락과 교육도 지원하고 나섰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시흥시, 인천 남동구 아동 300명에게 건강도시락을 제조하고 배송했으며, 주거정보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사용 태블릿 및 PC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70명, 경남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200명이 포함됐다. 경남 취약계층 300가구 아동에게는 어린이용 운동기구와 손소독제 외 DIY 세트와 보드게임, 과자 등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서 성장기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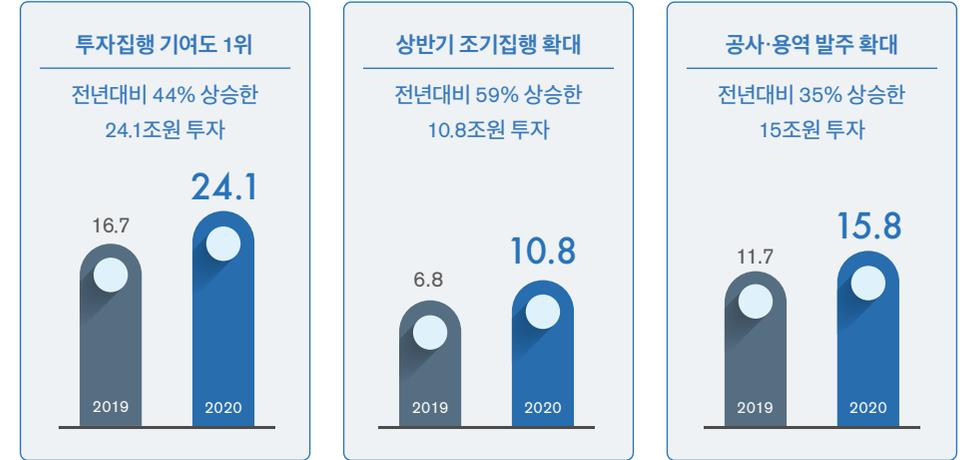
⑤ 투자와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선도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LH는 정부가 제 4차 비상경제회의 후 발표한 내수경기 보완대책에 따라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 선구매’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위탁용역비, 각종 물품, 행사, 회의 등 총 9개 부문에서 선결제와 선구매를 시행하여 목표금액 1,148억원의 136%를 초과 달성하는 결과를 거두었다. 경제 어려움을 최접점에서 체감하는 지역본부는 사회, 경제적 기관과 협업하여 경제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저소득 아동 문화교육 프로그램 외 25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총 6.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동네식당 살리기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 위기 소규모 식당과 식품 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구 영구임대 독거노인에게 도시락과 농산물을 전달하는 등 2.9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화훼농가 살리기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총 4.2억원에 해당하는 꽃, 식물 등을 정가 수시 구매하여 각종 행사 취사로 경영난에 처한 화훼업계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LH는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꽃송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LH는 경제활성화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또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과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사회적 경제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 경기 침체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투자 확대

LH는 경기 침체를 막고자 2019년 16.7조원이었던 것에서 44%(7.4조원) 가량 증가한 사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총 24.1조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투자의 40%에 이르렀다. 2021년의 사업 투자 예산은 이보다 확대되어 2020년 예산 23조 5,055억원과 비교했을 때 21% 확대된 28조 4,823억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주요 SOC 공공기관 중 전체의 68%에 달했다. 상반기 조기집행 역시 확대됐다. 2019년 상반기 6.8조원에 대비해 59%에 달하는 4조원의 투자를 확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2020년 집행 사업비의 45%에 달하는 10.8조원을 집행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1조 8,788억원을 집행하여 연간 계획인 20조 571억원에 대비해 59.2%, 상반기 목표 10조 7,901억원 대비로는 1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더불어 공사·용역 발주 역시 2019년 11.7조원인 것에 비해 35% 가량인 4.1조원의 발주 확대해 총 15.8조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했다.

○ 다각도로 확대된 일자리 창출

LH는 ‘LH Good Job Plan’에 맞춰 코로나19 고용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분야별 실무 경험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체험형, 도시재생 인턴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이들에게는 LH와 지자체 도시재생 업무 체험이 주어졌다. 이를 통해 채용된 청년은 총 1,238명으로 전년대비 422명이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노년층은 전년 대비 393명 많은 2,186명을 돌봄사원으로 채용하여 LH 주거생활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총 49개의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입주민 참여형 입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2. 2021 분야별 지원 실적

① 디지털 기술의 전방위적 도입,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 종합포털 구축 및 사전청약 시스템 개발

LH는 3기 신도시 등 향후 10년간 주택공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내집마련 종합포털을 구축해 수도권 등 주택시장 불안심리 해소에 나섰다. 또한 LH보상정보 포털을 통해 토지보상에 대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전 예약을 통해 보상현장 집중 및 밀집을 방지하고 원하는 시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밖에 주택청약 사전청약 시스템을 개발하여 PC, 스마트폰 등 언제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총 40만건의 청약을 접수해 3.2만호를 공급했다. LH MYMY 서비스를 통해서도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공공정보를 활용해 임대주택 신청 시 서류제출 불편을 경감하고 자동 입주자격을 검증했다. 그 결과 연간 비용 700억원을 절감하고 임대계약 760만 시간을 단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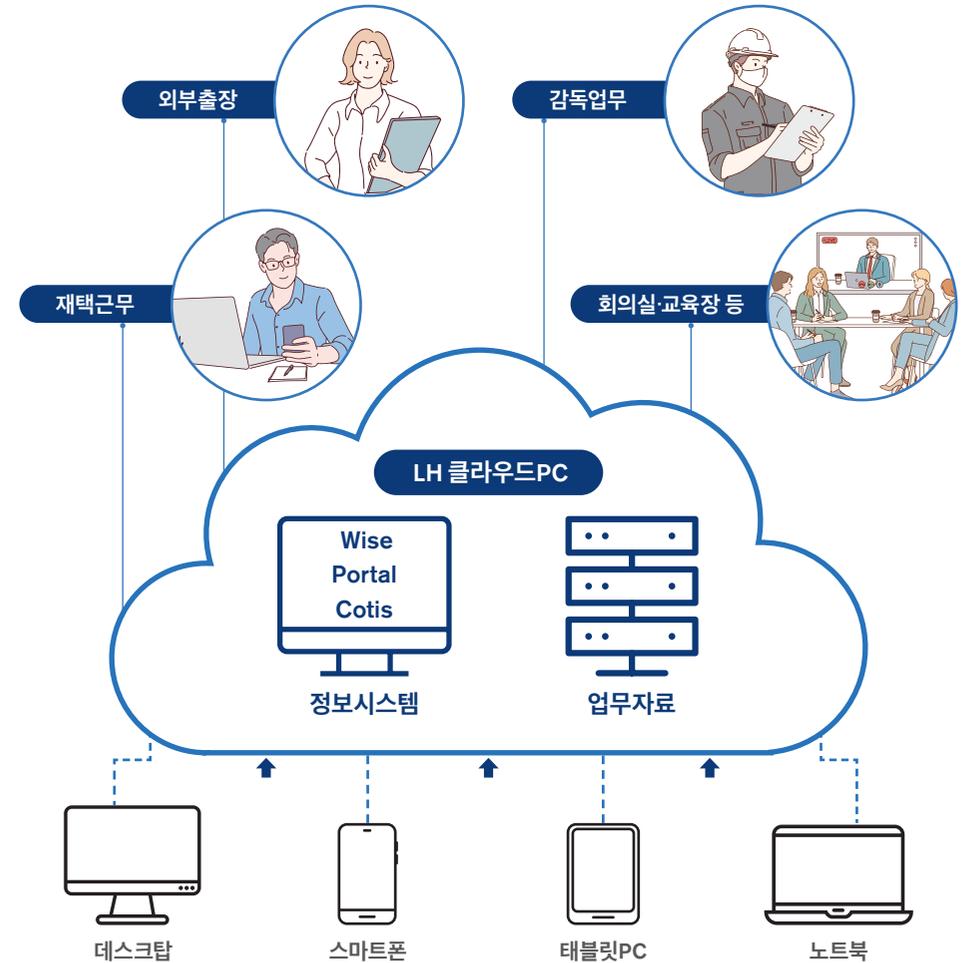
LH는 시공간 제약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을 이어나갔다. 입주민, 고객, 건설업체 등에 비대면 전환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했다.



○ 접촉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인 디지털 기술 도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LH는 근무환경·보안·건설현장·안전 등의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했다. 먼저 건설현장에서는 Zoom을 이용한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CCTV, 이동형 CCTV 등을 도입해 근로자 간 접촉 최소화로 감염을 방지하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온택트 업무처리 방식이 확산됐다. 또한 VR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 및 무상보급하는 등 민간 사업장까지 확장했으며, 생체신호밴드, 원격가스감지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에게 실시간 안전지원을 제공했다.

전 직원 LH 클라우드 PC 설치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망 분리를 통해 사이버 보안도 강화했다. 출력물 보안, 문서 암호화 등 문서유출 방지시스템도 구축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 예방하고 필요시 책임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업무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 제고했다.



② 소상공인부터 임대주택 입주민까지, 지원 통한 고통 분담

○ 임대료 감면 연장 통한 소상공인, 산업단지 지원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과 임대상가에 대해 25%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여 소상공인 2,150개소에 36.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13개 임대 산업단지 및 공공지원건축물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25%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여 199개 업체에 총 42.2억원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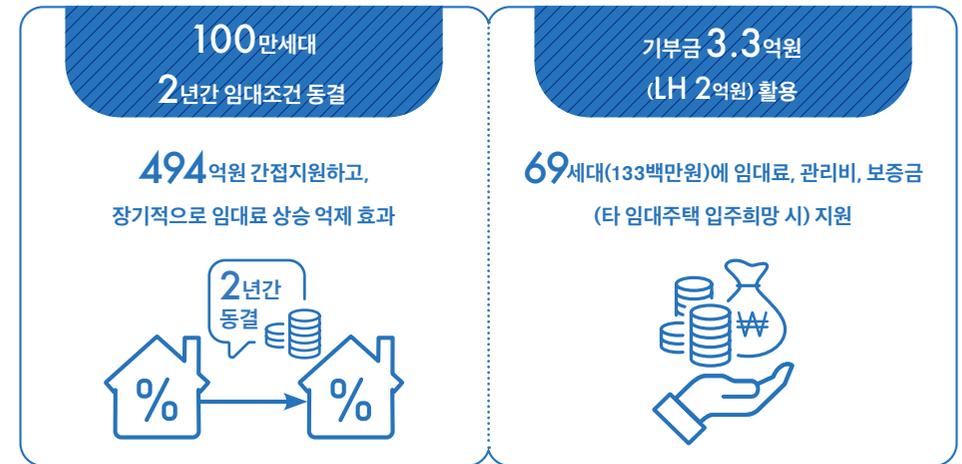


소상공인, 어린이집, 산업단지와 임대주택 입주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LH는 임대조건을 동결하거나 감면하는 등 지원을 통해 고통 분담에 나섰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임대주택 입주민과 퇴거위기가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21년에도 지속됐다. 전국 임대주택 거주 100만세대에 대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동결됐다. 100만세대에 대해 2년간 임대조건을 동결하여 494억원을 간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중 24개월 이상 체납자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하는 등 임대료·관리비 체납 중인 퇴거위기가구에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기부금 총3.3억원(LH 2억원)을 활용해 69세대에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었다.



④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다

○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카드와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LH는 경남지역 코로나19 극복 'LH 희망나눔 카드'를 배포했다. 경남 사회복지모금회가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LH가 기부금을 지원하여 경남은행에서 카드를 제작하였으며 취약계층 5,000세대에 10만원씩 총 5억원의 카드가 지원됐다. 또한 영구임대 단지 내 취약계층의 명절나눔과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10억원 역시 지원했다. 더불어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통해 경남지역 기업 1호로서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LH는 희망나눔카드와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주거위기가구에게 긴급주택을 제공했으며 이주 정착비를 지원했다.



○ 긴급주택 제공과 이주 정착지 지원

LH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주거위기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무상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수요조사 후, LH가 임대주택 사용 협의 및 무상 공급계약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의 12개 기초지자체 내에 실직과 질병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취약계층에게 61호의 거처를 공급했다. 또한 전국 60개소에 원스톱 서비스인 이주지원119센터를 운영하여 이주를 지원하는 등 쪽방과 빌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에도 힘썼다. LH는 쪽방상담소 등 NGO,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비주택거주자 9,217명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이중 6,283명이 이주를 희망하여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재단과 함께 총 6,02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이주 정착비 10억원도 함께 지원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시 이루어졌다. 시설생활 노숙인들의 심리치료와 여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우리도 나들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인 <삼시세끼>,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집 청소 <클린투게더>가 진행되었다.



④ 세심한 방역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확산 방지를 위한 'LH 비상대응체계' 정립

LH는 임직원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 역학조사 및 통보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선제적 검사와 격리를 진행하는 'LH 비상대응체계'를 정립하였다.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층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2차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소속부서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또한 검사비용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과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에 힘썼다.

이와 함께 사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 복무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위드코로나 실현에도 한 발자국 다가갔다.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활동 등에 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세분화하여 지침을 수정하였다.



임직원과 건설근로자 모두 국내 전체 감염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한 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최소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섰다. 건설현장 근로자와 임대주택 입주인을 대상으로도 방역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 현장 중심 점검 강화와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LH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본사와 현장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해 현장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확진자 발생 현장의 자체 실태점검과 본사주관의 시공, 안전, 방역 점검을 병행한 결과 411개의 건설현장 모두 건설공정이 지연되는 일 없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임대주택 입주인을 대상으로는 방역을 넘어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주거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방문하는 문화 순회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정신과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주인을 돕는 마음건강위원회도 운영하였다. 이밖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고독사와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홀닥터가 월 2회 방문하고 수시 안심콜을 진행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건설현장 본사·현장 합동점검 실시

건설현장 411개 공구 중
건설공정 지연사례

'0'



임대주택 입주인 맞춤형 서비스

문화 순회사업 252회 시행

마음건강위원회 305개소

관리홀닥터 4,540세대 관리

⑥ 경기회복을 위한 공공투자과 일자리 창출

○ 확대에 입중한 공공 투자 프로젝트

LH는 상반기 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는 28.6억원이라는 공공부문 최대 규모 투자 집행으로 이어졌다. 입찰 참여 기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 역시 적용됐다. 입찰, 계약 보증금을 50% 인하고 청구 시로부터 14일 이내던 선금 지급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입찰 참여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2회 유찰 시 가능했던 수의계약 조건을 1회로 조정하고, 긴급입찰 발주가 가능하도록 입찰 소요기간 역시 단축했다. 이를 통해 5,482억원에 달하는 2,981건의 보증금을 인하고 긴급입찰 1,137건을 발주했다.

LH는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투자 프로젝트에 나섰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역시 이어졌다. LH는 청년, 고령자, 입주인 등 취업 취약계층 14,065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돌봄사원, 도시재생전문가, 체험형 인턴 등 직접고용 3,141명부터 수선유지급여 업무위탁, 하자검사·모니터링 용역, 입주인 참여형 입주청소 등 7,969명의 간접고용까지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LH 희망상가,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빈집비축 플랫폼 활용 창업 등 2,955명을 대상으로 창업공간도 제공했다.

입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일자리 확대도 이어졌다. 정보부족 등으로 구직이 어려운 취약계층 입주인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다. 6개 광역권 102개 단지에 일자리 상담사가 주1회 방문하여 맞춤형 일자리 상담·구인정보 제공, 직장적응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입주인 83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개교했다. LH는 단지 내 상가 44호를 청년센터로 변경 후 무상임대하였으며 세종시와 중진공은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사관학교 개교 및 총 13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4-3. 코로나19 대응 평가

① 코로나19 대응

1 > 정부 대응

가. 초기단계 ('20년 1월~'20년 6월)

'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을 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및 접촉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1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

나. 중기단계 ('20년 7월~'21년 10월)

- 메르스, 사스 등 과거의 감염병 사례 감안 시,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하지 않고 백신이 개발 되면 종식될 것이라 판단되었으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지속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백신접종률 등에 따라 수시로 방역 대책을 변경하여 발표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통시설 등 방문판매 등 경매장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아인아인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일정도 최소와 혼재 진행 1/9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용의 권장	

출처 : 질병관리청(2020.10.11 기준)

다. 단계적 일상회복 ('21.11 ~ '22. 4.)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등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백신접종률, 의료대응체계, 재택치료 도입, 접촉증명·음성확진제 도입 등 국민의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하여 운영 중

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2. 4.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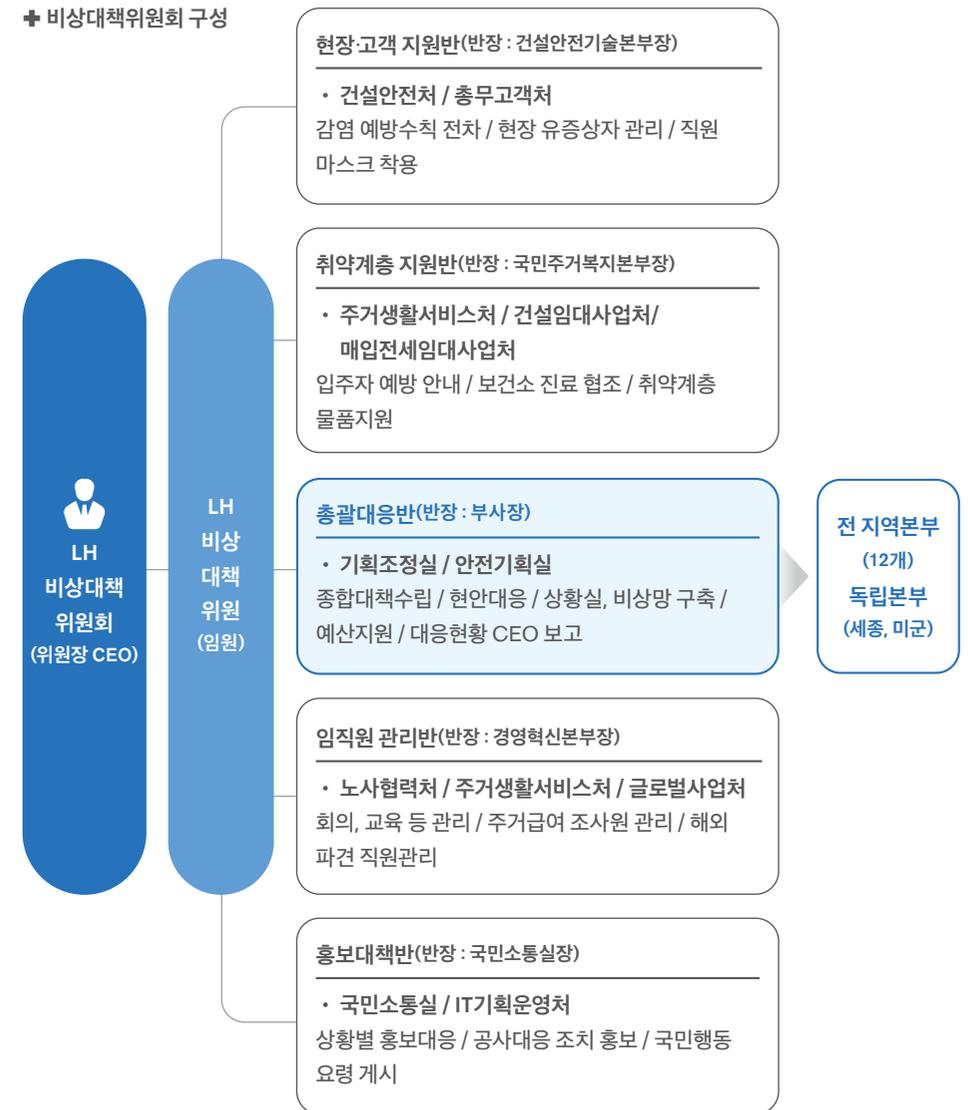
'22년 3월 이후 전 국민의 30% 이상 감염, 코로나19 유행의 확인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 방역 체계로 전환하여 일상회복 추진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하여 운영 중

2 > LH 대응

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공사의 주요업무인 주거상담, 주거급여조사, 판매, 3기 신도시 추진 등 대면서비스 상시 수행과 인허가 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 출장으로 인한 임직원 감염 전파 우려가 큼. 또한 임대주택 등 입주민과 건설현장 근로자 간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사 임직원, 입주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리스크 대비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20.1월)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나. LH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정

대국민 접점업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하고, 선제적인 대응 및 사내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LH 맞춤형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음

✦ 정부방역지침 LH 방역지침 비교표('21. 5월)

구분	정부방역지침	LH 대응
소독	확진자 발생 '해당부서(사무실)'	확진자 '발생 층' 및 '공용공간'
검사	확진자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 등 근거리에서 대면한 자 ① 해당부서 근거리 근무 직원 ② 근거리 동선 중복 직원	집단감염 및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 ① 해당 층 근무직원 전원 ② 동선 중복(회의, 식당 등) 직원 전원 ③ 해당부서 방문 및 접촉한 직원
자가격리	검사자만 결과 확인까지 격리	해당 층 직원 모두의 검사결과 확인까지 해당 층 부서원 격리
동거가족격리	해당 공무원 정상근무	해당직원 가족격리해제까지 재택근무

다. 비상근무 및 상황공유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총괄대응반인 안전기획실에서 1년 365일 비상근무를 시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일일대응현황을 포털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과 공유('22.10.31 기준 일일대응상황보고 930보) 하고 있음. 아울러,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백신접종관련 안내사항을 게시판, SMS, 방역지침 준수관련 영상제작, PC 화면보호기용 코로나19 안내문 제작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임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코로나19 대응 주요우수사례

1 > 아산에너지사업단 확진자 발생 관련

- '20.11월 아산에너지사업단 시설운영 직원 1명이 확진판정되어 전 직원 검사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역학조사결과 운전팀 전원 격리 통보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중단될 위기 상황이 발생
- 아산에너지사업단은 주택용 2만호, 업무용 1만호 등 최대 8만호까지 열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는 시점을 감안 시 아산에너지사업단 운영금지를 막아야 하는 상황
- 안전기획실, 도시기반처 등 LH 대응반은 아산시 에너지 열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위해 운전팀 전원 격리는 불가함을 피력. 충청남도 역학조사관, 시의원, 국회의원, 보건소 담당자 등 관련기관의 마라톤 협의

의 끝에 운전실 코호트 격리운영키로 결정

→ 코호트 격리를 위해 임시격리시설인 카라반 11동을 긴급설치하고 격리 직원들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지급한 사례. 아산시에 정상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한 좋은 사례

2 > 재택근무 중 확진

- 정부의 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르면 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로 통보 시 해당공무원은 정상근무가 가능하나, 공사는 정부보다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운영 중으로 동거가족 자가격리자 통보 시 해당직원은 가족의 격리가 종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시행
 - '21.08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된 직원이 발생하여 매뉴얼에 따라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 직원이 재택근무 중 가족확진, 본인이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
- 공사의 강화된 매뉴얼에 따라 해당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사내감염을 방지한 우수한 사례

3 > 국외출장 후 확진자 발생 관련

- '21.06월 직원 4명이 국외출장 후 입국 시 PCR검사에서 직원 2명 확진판정을 받고, 확진자 외 직원 2명은 공무원의 목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자로 통보를 받아 정상근무 가능여부를 안전기획실로 문의. 국외출장 직원 4명은 출국 전 검사, 현지 검사 2번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이후 입국 시 검사에서 2명이 확진을 받은 상황으로 확진직원과 격리면제 직원은 업무상으로 밀접하게 접촉
 - 증상발현이 늦을 수 있는 점, 6월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점, 격리면제 기간중 대내외 업무관련 회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침보다 강화하여 격리면제 직원 2명을 일주일간 재택근무 조치
 - 격리면제자 2명 중 1명은 재택근무 중 의심증상 발현으로 검사 실시 후 확진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없어 정상근무로 전환. 이후, 델타 변이 검사결과 국외출장 최초 확진자 2명과 재택근무자 중 확진된 직원 1명 모두 델타 변이로 확인
- 추가로 확진된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했다면 공사 임직원 추가 확진과 델타 변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아낸 우수한 사례

㉡ 대응평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로감이 누적되고 방역수칙 준수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LH 코로나19 맞춤형 대응 매뉴얼에 따른 선제적 검사, 재택근무시행,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안전기획실과 대응방안 소통 등 전사적인 대응으로 공사는 국내 확진자 발생률보다 낮은 확진비율을 유지

정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공사의 복무지침,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코로나19 대응을 잘 이행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CORONAVIRUS DISEASE 2019-**5**



PART5 외부 전문가 자문



국토교통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이준 박사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



○ 국민과 함께 성장한 LH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가의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2년 대한주택공사로와 1979년 한국토지공사로 설립되었다. 이 두 공사는 2009년 효율성 제고와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발전하였다. LH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함께 전국에 대규모 신도시 계획 및 건설, 주택의 공급 등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왔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LH는 택지·신도시·행복도시·혁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산업물류단지, 경제 자유구역의 경제활동 지원과 남북협력, 해외사업에 이르는 폭넓은 사업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며 지금의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을 이끈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약 1만 명(2020년 9월 기준)의 우수한 인력이 6개 본부와 1개 연구원, 14개의 지역·독립본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만 184.3조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공기업으로 언제나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LH가 수행하는 공간적인 사업 범위는 2020년 기준 390km²에 이르며, 국가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도시재생관련 사업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공공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민·영구임대를 위하여 16.2만호(2020년 기준)를 건설 중에 있다. 이러한 대형 사업들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정적 주택공급(주거복지 로드맵 수립)과 이주지원 119센터의 운영으로 이주희망자를 발굴함으로써 주거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수하였는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라 5곳을 지구지정(32.7km²)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정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본의 확충을 가능케 하고 주거 안정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은 2022년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은 이른바 인류와 바이러스의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교통의 발전에 따른 고속화, 공간의 고층화, 대심도화 등에 따른 고밀화, 경제사회 구조의 초연결성으로 어떤 국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없었으며,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전면적 봉쇄조치를 단행하는 등 21세기에는 재현되리라 전혀 예상하지 않던 상황들이 세계인을 당황과 혼란, 공포와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없이 이 감염병이 유입되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례가 없는 초강력 방역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지금까지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 협조에 따른 K-방역의 모델 수립과 방역의 이행이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정부정책의 실무적 대응은 LH와 같은 공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하에 소개될 LH의 자발적 대응노력 외에도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였던 LH의 노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재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의 제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적 재난발생과 재난책임기관으로서 LH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이후 거대한 감염병의 위협에서 전 세계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3월에 범유행으로 격상시킨 이후 상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한 현재에도 전 세계인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즉각적으로 해소되리란 낙관적 전망을 선불리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종 변이의 발생 및 확산으로 좀처럼 감염병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을 겪어나가며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의 우수성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인의 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재난관리 수준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LH와 같은 대표 공기업이 재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적 대응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LH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및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코로나 19 사태가 '경계'단계에 돌입함과 동시에 "LH 비상대책위원회(현장·고객 지원반, 취약계층 지원반, 총괄대응반, 임직원 관리반, 홍보대책반 등 5개반)"를 운영하며, CEO가 직접 참여하는 진두지휘하는 신속한 대응을 시작하였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수립(LH 임대주택 대응계획,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 단계별 비상대응계획, 재택근무 지원방안, 코로나19 복무관리지침 등)으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선도하였다. 특히, 코로나 대응단계의 격상됨에 따라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경제활력 지원방안(조기투자집행 및 투자확대, 착한임대료지원, 지역화훼농가 및 인근상권지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피해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LH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중증도를 고려한 효율적 의료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했던 정부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여, 경중의 환자에 대한 격리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확진자와 운영관계자를 위한 공간 마련이었다.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지역감염을 우려한 여러 지자체가 설치운영은 찬성하지만, 시설지원은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LH는 신속하게 속초연구원을 생활치료센터 운영요원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하여 의료봉사자의 생활공간을 지원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전방에서 대응하는 재난책임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혈액 수급난이 가중되는 의료체계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의 약 10%(1,309명)가 헌혈에 참여하는 놀라운 정책실현의 지원과 구성원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

○ 국가적 재난에 고통분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경제·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지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생활 터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대료 25%~50%를 감면하고, 임대료도 납부 유예 및 임대조건 동결하는 등 LH의 역량 안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 고통분담의 노력도 있었는데, 임원급 월급의 임금반납(4개월간 30%)을 하고 이 재원으로 조금이나마 주거복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20억)를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였는데, 노사간 원만한 협의까지 잘 진행되어 공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LH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공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출처 : www.tjb.co.kr



출처 : www.cnbnews.com

○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한 LH

방역당국은 장기적,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통행자제를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제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경제위축을 경계하며, 감염병의 확산 저지와 경제활동 유지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LH는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투자규모(전년대비 투자 44%증가, 총14조원)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사·용역발주를 오히려 확대(전년대비 35%증가, 총 15.8조원)시키고 조기집행(전년대비 45%증가, 10.8조원)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LH는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 재난 취약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지역의 경제활동 지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고용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청년층을 위한 체험형 인턴과 노년층을 위한 돌봄지원을 하였다. 분야별 실무경험을 체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돌봄사원을 채용하여 청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을 통해 12,00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에게 희망키트기부 및 교육여건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 PC와 성금을 기부·기탁 하여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진행하였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회취약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거대 재난 속에 위기관리 및 내적 재난대응 노력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시적 방역체계로 전환을 도모하며 LH내부의 방역활동도 빈틈없이 이루어졌다. 비상경영회의 및 비상경영추진 TF를 운영하여 의사결정과 대응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CEO가 재난대응의 선봉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출처 : www.kihoilbo.co.kr



그 밖에도 직원들의 방역활동을 위하여 대면업무의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원격근무,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등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내적·외적 대응체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다.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LH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고, 감염자의 확산세가 아직은 거세지만,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로 결국은 코로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 재난 이후의 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 다가왔다.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발생하여 국민을 위협할 수 있으며,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만 탓할 수는 없다. 어쩌면 이러한 불확실에 명확한 미래상을 그려주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일 것이다. 아직도 LH의 역할은 많이 남아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지지를 이끌 수 있는 든든한 공기업이어야 하며, LH의 본래 기능인 “국민 주거안정성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도시정비,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 앞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성 회복인데, LH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역할에 비하여 일련의 사태로 최근에 신뢰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청렴과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 과 내적인 혁신과 반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LH에게 다시 한 번 공기업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2022 CORONAVIRUS DISEASE



부록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안내문

코로나후유증 QnA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2022. 4. 26.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수칙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안내문



질병관리청

22.08.12.
13-1판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 등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감염취약시설(3종):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기: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단기: B1~2, C, C3~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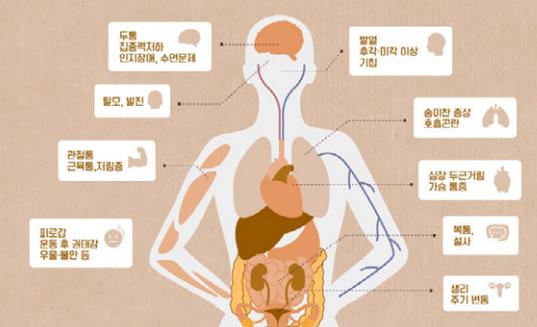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2022.5.13.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코로나19 후유증 바로알기



1/9

2022.5.13. 질병관리청

Q1.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국내외에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 대상자, 조사기간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임상증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심장, 폐, 신장, 피부, 뇌기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다장기 증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Post-COVID Conditions(202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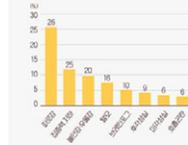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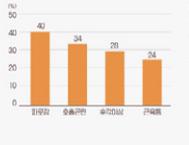
2022.5.13. 질병관리청

국내외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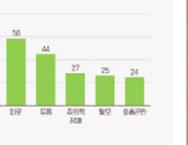
[국내] 대구지역 확진자 대상 후유증 양상 설문조사



[국외] 영국 국가 통계 기관 코로나19 후유증 증상 조사



[국외]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메타연구



- 그 외, Nasserie T 등 연구*에서는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또는 탈진(exhaustion), 수면장애 또는 불면증**이 다빈도 증상으로 확인

연구 결과 출처

* 대구지역 확진자 965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경북대, 2020.9.11.
 * Prevalence of ongoing symptoms following COVID-19 infection in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2.4.7.
 * More than 50 long-term effects of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opez-Leon S, etc. 2021.1.30.
 * Assessment of the Frequency and Variety of Persistent Symptomatic Among Patients With COVID-19: A Systematic Review, Nasserie T, etc. 2021

3/9

2022.5.13. 질병관리청

Q2. 코로나19 후유증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증상 지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는 주요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외 연구결과] 코로나19 입원력 있는 환자 대상 후유증 지속기간 6개월 추적조사

진단 이후 3개월 **92.2%**

↓

진단 이후 6개월 **46.8%**

* 일본 후생노동과학특별연구사업 후쿠나카반 중간보고, 2021.6.(조사기간: 2020.1.-2021.2.)

4/9



2022.5.13. 질병관리청

Q3.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 환자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나요?

- ✓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및 경증이었던 환자도 회복 이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후유증의 발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9

2022.5.13. 질병관리청

Q4. 소아 및 청소년도 코로나19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 ✓ 소아 및 청소년도 코로나19 감염 이후 성인과 유사한 경향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 코로나19 후유증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성인에 대한 것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 한편, 코로나19 감염 소아에서 드물게(약 0.02~0.31%)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연령대는 3개월~20세 사이로 코로나19 감염 2~4주 후에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계 증상(복통, 설사, 구토 등),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의 경우 2020.5.25. 첫 사례 발생 이후 0~18세 학령기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다기관염증증후군의 발생건수는 19건으로 모두 요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특이 사례 발생은 없음(20.5.-22.2. 기준)

6/9



2022.5.13. 질병관리청

Q5.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보고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증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특이적인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 ✓ 아직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9

2022.5.13. 질병관리청

Q6.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 발생 또는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코로나19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후유증 예방법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여 감염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한편,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전 예방접종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8개의 연구 결과*,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 비해 후유증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UKHSA review shows vaccinated less likely to have long COVID than unvaccinated, UK Health Security Agency (Press release), 2022.2.15.

8/9

2022 LH 코로나19 대응백서

**3년의 시간
다 함께,
그리고 이렇게**

발행처 안전기획실 재난관리부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COPYRIGHT©2022.10.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